

한국YWCA 100주년 기념

# YWCA역사포럼

## -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서울YWCA 4층 강당 / 유튜브 생중계

공동주최 : (사)한국YWCA연합회,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YWCA 1922-2022

#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한다 .

## YWCA 역사포럼

- 3 일정표
- 4 개회사
- 7 세션1. 일제 강점기 ~ 6.25 전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 9 발제1. 일제 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
  - 22 발제2. 해방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설립의 기독교여성운동
- 37 종합 토론
- 43 세션2. 1970년대 이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 45 발제3.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
  - 66 발제4. 지역청년운동으로의 YWCA 지역여성운동
  - 88 발제5.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
  - 90 발제6. YWCA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라며
- 101 종합 토론
- 106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소개자료
- 107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문

한국YWCA 창립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

- 목적 :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YWCA운동의 한국 기독교여성운동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100년 이후 새로운 역사 속에서 펼쳐갈 기독교여성운동 방향을 모색함.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 4층 강당(유튜브 라이브)
- 공동주최 : 한국YWCA연합회, 김필레션생명기념사업회
- 일정과 내용

시간	순서	세부 내용
<b>사회: 이은영 부회장</b>		
14:00~14:10 (10분)	<b>개회</b> YWCA 100주년 영상 개회사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발표자, 내빈 소개	
<b>세션1: 일제 강점기~6.25 전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b>		
14:10~14:30 (20분)	<b>발제1: 일제 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b> - 손승호 박사((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	
14:30~14:50 (20분)	<b>발제2: 해방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b> - 김은하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14:50~15:20 (30분)	<b>종합 토론: 서정민 교수(일본메이지가쿠인대학)</b>	
15:20~15:40 (20분)	<b>휴식</b>	
<b>세션2: 1970년대 이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b>		
15:40~16:00 (20분)	<b>발제3: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b> - 도입방주 총무(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16:00~16:20 (20분)	<b>발제4: 지역청년운동으로의 YWCA 지역여성운동</b> - 곽지영 교수(송실사이버대학교)	
16:20~16:40 (20분)	<b>발제5: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b> - 이다인 학생회장(정신여고)	
16:40~17:00 (20분)	<b>발제6: YWCA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라며</b> - 신보미 사회복지사(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7:00~17:30 (30분)	<b>종합 토론 : 이은영 교수</b>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30	<b>폐회</b>	

## 개회사

원 영 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YWCA역사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청년, 여성, 기독교, 국제, 회원운동체입니다. 올해는 4월 20일 백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비전을 선포한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여성평화포럼과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화보집 발간, 사진전 등 많은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YWCA 100년 역사를 통해 전개해 온 YWCA 운동의 기독교여성운동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100년 이후 새로운 역사 속에서 펼쳐갈 기독교여성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역사포럼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YWCA 창설자 중 한 분인 김필레 선생의 사역을 연구하고 그 업적을 기리며 널리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의미가 더 큽니다.

오늘 포럼은 1922년 일제강점기 '여성해방과 민족 독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YWCA 초창기 창립 정신과 목적, 시대적 상황에 굴복했던 역사적 과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학생', '청년', '지역' 등을 키워드로 YWCA운동의 기억과 전망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

무더운 날씨 중에도 현장에 걸음해주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각 주제별로 연구해주시고 훌륭한 발제로 함께 해주시는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럼 기획부터 함께 고민해주신 손승호 박사님,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에서 가르치시면서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중에도 흔쾌히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서정민 교수님, YWCA에 대한 연구논문을 써주시고 발제를 통해 공유해주시는 김은하 박사님, 기독청년학생운동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도임방주 총무님, YWCA운동을 날카롭게 분석해주실 곽지영 교수님, 김필레 교장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다인 학생, YWCA 지역여성운동의 실제 사례와 시사점을 나누어 주실 신보미 님, 그리고, 사회와 전체 종합토론을 진행해주실 이은영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서울YWCA 이유립 회장님과 김양선 사무총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광주YWCA와 서울YWCA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두 회원YWCA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광주와 서울YWCA의 100주년 관련 소식과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암매한 시대에 YWCA를 세우셔서, 더 어두운 세상을 살던 여성들을 위해 우리로 횃불을 들게 하시고, 100년의 역사를 이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오늘 나누어주시는 기억과 전망에 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YWCA에 주신 사명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 ~ 6.25 전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 일제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

손승호

(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

## 1. 들어가는 말

한 기관의 100주년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는 이야기는 그 기관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관이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정당성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무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때에야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YWCA는 오늘날까지 “왜 한국에 YWCA가 필요한가”를 증명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발표에 앞서 한국인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YWCA의 10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존경을 표한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의 한국YWCA의 진로를 거칠게나마 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여성들이 다양한 폭력과 모순이 공존하던 일제강점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누구와 연대해왔으며, 그러한 연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여성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의 교차점 위에 서 있었다. 따라서 누구와 손을 잡고 모순에 맞서는가는 전략적 선택인 동시에 정체성의 표현이었다.

그동안 한국YWCA는 각광받는 역사탐구의 주제는 아니었다. 그 학문적 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의 관련 학술논문은 약 20편이며, 학위 논문은 약 14편 정도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의 기독교여성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유학파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YWCA를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자기 역사정리에 해당하는 『한국YWCA 반백년사』와 『한국YWCA 80년사』를 제외하면 단행본은 3권이다. 유성희의 『한국YWCA100년의 여정: 축제의 회복을 위하여』, 천화숙의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윤정란의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것이다. 세 권 모두 필자의 박사논문을 보완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sup>1)</sup> 이중 유성희와 천화

속의 책은 오히려 YWCA에 집중한 책이고 윤정란의 책은 1910년부터 1945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중심은 YWCA에 있다. 천화숙과 윤정란의 연구는 특히 일제강점기의 YWCA 연구의 출발점으로 이후의 연구들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시도하자 한다.

## 2. 민족모순과 여성모순의 교집합, YWCA의 시작

YWCA가 조직된 1920년대 전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가장 큰 것은 역시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한 것이다. 일제는 조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만적이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완화하였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교육, 참정의 권리가 표면적으로 확대되었고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실력양성운동의 강력한 대두이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가들은 민족자결의 차원에서 절대독립론(무장투쟁론), 외교독립론에 입각한 운동을 일정기간 이어갔지만 서구의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조선의 독립문제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이를 목도한 조선인들 사이에 당분간 독립은 어렵다는 절망감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 등 실력의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 번째는 여성단체 설립의 확산이다. 3.1운동 직후 혈성단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고 4월에는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두 단체는 10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재조직되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평양, 대구, 개성, 진주, 기장, 밀양, 거창, 통영, 양산, 울산, 부산, 마산, 군산, 회령, 정평, 목포, 전주, 광주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장로교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본부로 조직체계를 보완하였다. 1921년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지역단위 여성단체들은 30개에 달했는데 이중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단체가 90%가 넘었다.<sup>2)</sup> 이렇게 여성단체의 대다수가 기독교에 배경을 두게 된 것은 구한말부터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교육을 두고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족독립을 위한 정치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비밀리에 활동하던 여성독립단체들은 일제

1) 그나마의 책들이 모두 박사논문을 수정·보완한 출판이라는 것은 그동안 YWCA가 역사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서울: 태화여자관, 경기: 인천여자웹릿청년회·개성여자교육회·안성여자교육회, 충청: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청양군여자강습소후원회, 강원: 원주여자강습회, 전라: 군산부외구암리기독교여자청년회·전주여자수양회·전주군야소교성경학원내야소교여자사경회·목포기독교여자청년수양회, 경상: 부산여자청년회·대구남성정예수교회부인전도회·밀양여자청년회·마산여자청년회·진주부인회·합천야소교부인회·창년부인회, 평안: 평양여자기독교청년회·평양결백회·천도교평양여자청년회·강서여자청년회·안주군기독교청년여자무함회·의주여자기독교청년회·진남포장로교당기독교여자청년회·정주읍기독교청년여자교육회, 함경: 성진여자청년회·함흥여자청년회·원산천도교청년회·정평여자청년회,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지식산업사, 1996), 254에서 재인용.

3)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국학자료원, 2003), 21-58 참조.

의 탄압으로 인해 와해되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는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였다. 기독교여성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조선여성의 힘을 결속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으며 세계적인 기관인 YWCA가 최적의 기관이라고 결론지었다.<sup>4)</sup> 그 결과 1922년 3월 27일 경성여자교육협회에서 30여명이 모여 YWCA 창설을 위한 첫 모임인 1차 발기회를 열고 회장으로 유각경, 위원으로 김미리사·김필레·방신영·김살로메·김경숙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4월에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WSCF 총회에 김활란과 김필레를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sup>5)</sup>

김활란과 김필레는 WSCF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여 조선YWCA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4월 20일 제2차 발기회가 서울 이화학당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YWCA 창설을 위한 하령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하령회 임원으로 회장 김활란, 부회장 방신영, 총무 김필레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가 현재 한국YWCA연합회의 기점이 되었다. 이어 6월 13일 첫 하령회가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열려 만장일치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기성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8월에 열린 제2회 하령회 겸 기성회 2차 총회에서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세계YWCA 가입을 결의하였다. 1924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YWCA 실행위원회는 개척회원국(pioneer membership)으로 조선YWCA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그렇다면 조선YWCA는 무엇을 기관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을까.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유지되었던 조선YWCA의 목적문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부와 타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청년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만국여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교적 행복을 발달케 함.
  - 나)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 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여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sup>6)</sup>

1조와 2조는 연합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3조는 국제성에 대한 대목이다. 실제적 활동을 규정한 것은 4조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을 축약하면 ‘여성의 전인적 발달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곧 YWCA의 활동 방향이었다. 당연히 YWCA에 참여한 기독교여성들이 무엇이 가장 시급한 여성문제인가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에 YWCA는 다양한 운동을 동시에 진행해나갔다.<sup>7)</sup>

4) Piley Kim Choi(1927);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1972);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대한기독교서회, 2022), 30에서 참조.

5)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회록” (1922년 3월)

6) 한국YWCA연합회, 『YWCA 목적문 이해』(대한기독교서회 2016), 12.

7) 김필레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선결과제라고 생각했고 김성실은 가장 시급한 것은 문맹퇴치라 주장했다. 김필레, “婦人運動에 대한 史的 考察,” 『青年』 6권 4호(1926.4), 김성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급선무,” 『青年』 10권 1호(1930.1),

초기 YWCA의 활동은 이전의 기독교여성운동이 그러했듯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실력양성론은 YWCA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표면적으로 창립 초기 YWCA의 운동은 문맹퇴치를 비롯한 여성교육, 축첩·조혼·공창 폐지 등의 여성권위 회복, 위생·육아·요리 등의 여성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식개혁과 생활 개선 없이는 암울한 민족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금주금연운동과 같은 절제운동 역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물산장려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기독교여성들에게 민족모순과 여성모순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윤정란은 YWCA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독교 여성들은 민족의 흥망성쇠란 여성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가정에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화를 교육받은 여성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주부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남성은 차별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한국이 나아갈 바라고 주장했다. 단 혹시 신문화를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유연애 등을 부르짖으며 타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문제 인식의 전환에 의해 탄생한 것이 전국 기독교 여성단체인 YWCA연합회였다.”<sup>8)</sup>

그런데 윤정란의 주장은 초기의 YWCA가 여성의 해방보다 민족의 독립을 우선시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여성의 교육이 곧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자유연애가 성적인 방종이나 타락이라고 인식하고 방지하고자 했다는 점은, 우매한 민중이 자유주의적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국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민권을 민족 또는 국가의 권리라 주장하며 개인의 권리가 아닌 애국적 의무와 연결했던 구한말의 개화지식인들을 떠올리게 한다.<sup>9)</sup>

1924년부터 여성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YWCA는 1925년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고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폐첩문제, ② 조혼문제, ③ 금무, ④ 금연과 금주, ⑤ 여자노동문제, ⑥ 공창폐지문제, ⑦ 경성에 유학 중인 학생의 남녀교제 주의, ⑧ 사회 실상 일람표 작성’<sup>10)</sup> 7항에 해당하는 “남녀교제 주의”는 차마 버리지 못한 정조관념과 개인의 자유보다 규율을 우선시 하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 역시 사회의 개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8)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60

9) 전상숙, “한말 ‘민권’ 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개인’과 ‘사회’ 인식에 대한 원형적 고찰: 한말 사회과학적 언설에 나타난 ‘인민’관과 ‘민권’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2012. 2), 5-33 참조.

10)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회록” (1925년 8월)

### 3.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근우회 합류와 결별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 세계에 사회주의 열풍이 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3.1운동 이후 국내에 사회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진영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산계급의 해방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해갔다. 이들은 1923년부터 기독교를 제국주의, 자본주의, 반민중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으로 비판하는 1차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 진영과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YMCA와 YWCA 계열의 운동가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반기독교 운동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오늘 사회주의자로부터 기독교회가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반기독교 운동이 없든 오든 오늘의 기독교 교회는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저 민중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앞 운명을 개척기 위하여 있어야 하며 따라서 현대의 기독교는 반성해야 한다.”<sup>11)</sup>

사회주의 진영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민족협동전선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1차 반기독교 운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1926년부터 사회주의 진영은 기독교가 중요한 세력으로 동참하고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기에 YMCA와 YWCA의 지도자들이 호응하면서 1927년 신간회와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1927년 4월 16일 60여명의 유학파 여성들은 회합을 갖고 범여성적인 전국 기관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26일에는 발기 총회가 열렸는데 발기인단 40여명은 사회주의 계열인 여성동우회와 기독교여성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sup>12)</sup> 1927년 5월 27일 근우회 창립대회가 종로 YMCA회관에서 열렸고 임시집행위원회의 회장에 김활란, 부회장에 유각경을 선출하였다. 임시집행위원들은 취지서, 2대 강령, 규약 및 선언 등을 결정하였는데 2대 강령은 “일,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함, 일, 조선여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이었다.<sup>13)</sup>

신간회와 근우회의 결성 이후 YMCA와 YWCA는 자신들도 민중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1927년부터 YMCA의 제16회 하령회와 YWCA의 제6회 하령회가 연합하여 제1회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연합회하령회로 열리기 시작했는데 제2회 연합회하령회의 광고 기사인 “조선남녀학생청년회연합회 하령회에 대한 갑을의 문답”에는 이 행사가 지식층 청년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온다.

11) 신희우, “반기독교 운동에 대하여.” 『靑年』 5권 11호(1925.11) ;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105에서 재인용.

12) 발기인단은 다음과 같았다. ‘강정희, 김미리사, 김선, 김순영, 김영순, 김활란, 김사도, 김일엽, 김순복, 길정희, 정철성, 조원숙, 양매륜, 유영준, 이현경, 이덕요, 박경식, 박원희, 박홍순, 반식우, 방신영, 서필선, 손메레, 신알베트, 신숙경, 유각경, 최은혜, 김지자, 정종명, 정자영, 정소군, 차사백, 최은희, 최활란, 현덕신, 홍애시덕, 이효덕’ 『조선일보』 1927년 4월 27일자.

13) 『조선일보』 1927년 5월 29일자

“갑 : 그러면 나와 같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을 : 그것은 큰 오해이네. 자네 이것이 그러면 무슨 부르조아 회합인줄 알았나? 우리는 정신부터 그렇지 않을세. ...

갑 : 그렇다면 내 이름도 쓰겠네. 우리 동지들이 참 정신으로 의미있게 모이는 회합이라면 나도 빠져서는 안되겠는데 하물며 이와 같은 전선의 남녀학생들의 모임에랴.”<sup>14)</sup>

또한 1927년의 제5차 총회에서는 “조선여자계에 보통 상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농촌사업을 할 일”을 토론하면서 농촌사업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다.<sup>15)</sup> 이는 그동안 도시 지역과 학생 계층에 조직과 운영이 집중되었던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렇듯 새롭게 형성된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합전선에 맞추어 YWCA가 무산계급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성들이 그만큼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족협동전선의 구축에 진심이였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이전부터 농민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사회주의 진영의 활동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념의 차이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여자의 지위향상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 간 인식의 차이는 분명했다. 예를 들어 1927년 10월 20일 개최된 근우회의 토론회의 주제는 “조선여자해방의 첩경이 경제독립이나, 지식향상이냐?”였다.<sup>16)</sup> 이는 YWCA를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의 실력양성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제였다. 이 토론회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일각에서는 경제독립이나 지식향상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 여성들의 모순은 오직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sup>17)</sup>

1928년 5월의 근우회 정기대회는 전 조선의 여성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투쟁적 능률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면서 근우회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편향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7월의 임시대회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중앙집행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우회를 좌익화 하였을 뿐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등까지 드러내었다. 결국 YWCA 계열의 인사들은 1929년 7월의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 이전까지 거의 탈퇴하고 독자적인 운동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때 주요 사업으로 떠오른 것이 농촌사업이었다.

YWCA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계의 농촌사업은 1928년 3~4월에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 예루살렘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농촌조사보고서”가 미국의 사회학자 브룬너(Edmund S. Brunner)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대회에 감리회 대표로 참석한 김활란은 “세계의 전 인구 3분의 2가 농민인 이상 그 다수를 본위로 삼은 농촌교육순서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모든 교회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sup>18)</sup> 1928년 8월에 열린 조

14) 한산, “조선남녀학생회청년회연합회 하령회에 대한 갑을의 문답,” 『청년』 8권 6호(1928. 6) 90-93;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해안, 2000), 149에서 재인용.

15)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회록” (1927년 8월)

16)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자

17) “근우회 토론을 보고서,” 『조선지광』 1927년 11호, 70-71.

18) 김활란, “예루살렘대회와 금후 기독교,” 『청년』 8권 11호(1928.11), 4-5.

선YWCA연합회 제6차 총회에서는 일반 여성의 부업으로 양잠, 직조, 고용인, 양돈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토론되었고 1929년 제7차 총회에서는 연합회 안에 농촌부를 정식기구로 두기로 결의하고 황에스더와 홍은경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후 농촌사업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보건위생에 관한 일 : 요리법 개선, 부업 개선, 하수도과 배수시설 개선, 도로 개선, 우물 파기, 의료사업, 기생충 박멸
- (2) 농민협동 : 신용조합, 저축조합, 협동구매, 소비협동
- (3) 농민교육 : 더 좋은 어린이 양육에 관한 교육, 한글교육, 각종 관청 관계 허가 신청에 따르는 교육, 종자개량에 관한 교육, 비료 개량방법, 농기구 개량방법
- (4) 농촌부업 장려 : 양계, 가축사육, 양잠, 양봉, 작은 작물 재배, 버섯재배, 화초채소 재배, 새끼줄 꼬기, 신발 짜기, 바구니 짜기, 자루 만들기, 목공, 농기구 만들기”<sup>19)</sup>

1928년부터 농촌사업이 YWCA의 핵심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안을 비롯한 재정관련 자료들에서도 확인이 된다. 1928년의 예산과 1934년의 예산을 확인하면 농촌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30% 가량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32년 5월에 해외에 보낸 보고서에서 재정 지원요청 금액 총액 \$2,500 중 \$1,000 즉 40%가 농촌사업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했다.<sup>20)</sup>

YWCA의 농촌운동은 농촌 문맹퇴치, 농촌 여성지도자 양성,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YWCA의 농촌운동은 그 한계가 뚜렷했으며 이는 당시 기독교 전반의 사회인식과 농촌운동이 가지는 한계와도 일면 닿아있었다. 윤정란은 당시 기독교의 농촌운동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고 아래 농촌계몽운동을 진행하면서 농촌여성의 교육은 남성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의 강좌에 머물렀으며 농촌여성 지도자의 양성 역시 농촌여성의 역할을 육아와 가사노동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것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sup>21)</sup>

천화숙은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YWCA의 농촌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볼 때 YWCA의 운동은 체제저항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 운동의 현실성 때문에 일제 식민지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붕괴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다. 요컨대, YWCA의 농촌 및 사회운동은 신앙의 외연적 발전 형태로서 하류층이나 민중에 도달하려던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YWCA는 여전히 운동의 추진주체와 농민들 간에 존재한 현실적 거리를 극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sup>22)</sup>

유성희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다.

19)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203.

20) “Report of the Korean Y.W.C.A.” (19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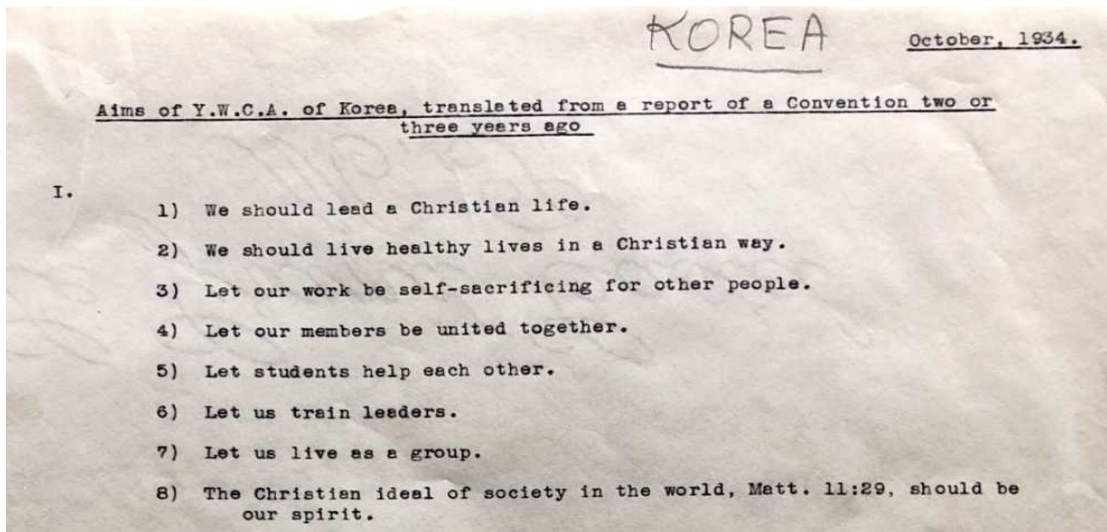
21)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162.

22) 천화숙,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214.

“도시에서 농촌으로 현장은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엘리트주의적 계몽운동이라는 위치는 변화하지 않았고, 농촌 문제의 근본적 개혁을 사회구조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개선이라는 개량사업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계몽운동이 가진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sup>23)</sup>

‘불의한 체제에 순응한 개량주의, 그리고 운동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엘리트주의’로 요약되는 천회숙과 유성희의 지적은 일제시기 YWCA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해외에 보고된 YWCA의 목적을 보면 일면 타당해 보인다. 1934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영문 자료 “Aims of Y.W.C.A. of Korea, translated from a report of a Convention two or three years ago”는 한국YWCA의 목적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sup>24)</sup>

1. 우리는 기독교적 생활을 이끈다. (We should lead a Christian Life.)
2. 우리는 기독교적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 (We Should live healthy lives in a Christian way.)
3. 우리의 일이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이 되게 한다. (Let our work be self-sacrificing for other people.)
4. 우리 회원을 단결시킨다. (Let our members be united together.)
5. 학생들이 서로 돕게 한다. (Let students help each other.)
6.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Let us train leaders.)
7. 우리는 공동체로 생활한다. (Let us live as a group.)
8.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세계 사회의 기독교적 이상이 우리의 정신이다. (The Christian ideal of society in the world, Matt. 11:29, should be our spirit.)”



23) 유성희, 『한국YWCA100년의 여정』(대한기독교서회, 2022), 60.

24) “Aims of Y.W.C.A. of Korea, translated from a report of a Convention two or three years ago”(October, 1934)

이 문서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에 YWCA의 역사적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해외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로 조선YWCA가 발송한 문서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일단 이 문서가 조선YWCA가 스스로 기구의 목적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자면 이 문서에 제시된 8가지 목적은 1922년의 목적문과 차이가 크다. 그리고 문제는 아무런 저항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목적은 다만 사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계몽단체의 것처럼 보인다. 오타일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 8번의 기독교적 이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sup>25)</sup>은 매우 체제순응적인 문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어디에도 농민, 노동자 등의 민중계층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일반여성의 자력화와 주체화에 연결 지을 만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목적문은 천화숙과 유성희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화숙의 지적에는 우리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일제 말기 YWCA의 굴곡이 다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YWCA안에 내재되어 있던 체제순응적 한계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일제말 파시즘체제와 여성, YWCA의 굴곡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륙침략정책을 시행하고 조선반도를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국가체제를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1938년 5월부터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서도 시행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의 기치 아래 조선의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전쟁수행을 위해 총동원하는 파시즘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일제는 파시즘체제에 기독교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사실상 일제 파시즘체제의 정신인 천황제이데올로기는 그 성립의 기초가 일본 고전신화에 있는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이념이었다. 천황제이데올로기는 그것과 배치되는 모든 근대 사상이나 세계 종교와의 논리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다. 따라서 천황제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서구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를 굴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1938년에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 1939년 제정된 ‘종교단체법’, 1940년에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에는 “국체에 적합한 야소교의 신건설운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목적이 순진하고 장래 성과가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때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줄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의 활동을 감시하여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만 남겨두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의 근본 방침은 “물심양면에 걸친 조선 기독교의 구미 의존관계를 금절하여 일본적 기독교를 순화 갱생하게 하는 것”이었다.<sup>26)</sup> 일제

25)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개역한글)

26) 손승호, “일제말 한국장로교회와 해방후 죄책고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2-24.

말기 YWCA의 활동의 둔화와 조직 약화, 그리고 일본YWCA동맹에의 종속은 이와 같은 일제의 강압적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YWCA의 민족주의적 지도자들의 이탈이 일어났다. 김필레는 수피아여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한 것과 관련하여 투옥된 이후 YWCA 활동을 하지 않았고, 황애덕은 만주로 이주하여 여성 민족운동과 농촌운동을 이어나갔다. 내선일체에 항거하는 지도자와 회원들은 서서히 연합회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김필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계 학교의 폐교가 이어지면서 학생 조직도 약화되다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다.<sup>27)</sup> 유성희는 1935년부터 생긴 이런 조직의 약화와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악화 등이 조선YWCA가 일제에 종속되는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데 매우 타당하다.<sup>28)</sup>

결국 1938년 6월 8일 조선YWCA연합회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세계YWCA를 탈퇴하고 일본연맹에 가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원장 김활란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비상시에 있어 기독교 여자청년들도 내선일체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아니하면 안되겠으므로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 앞날의 활동을 자기(自期)하는 의미에서 금번 ‘제네바’ 동맹을 탈퇴하고 동경에 있는 기독교여자청년회 일본동맹에 가담케 되었다.”<sup>29)</sup>

바로 전날인 6월 7일 YMCA의 결의에 이어 YWCA까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더군다나 이는 조선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였다. 일본YWCA는 조선 측에서 보낸 가입 의사 편지를 받고 이런 제안이 조선 측에서 왔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조선YWCA의 상황이 절박함을 보고 7월 15일 오전 10시에 조선 측과 교섭위원회를 열고 가맹 공식 결의 문서를 주고받은 후 가맹예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조선YWCA는 세계YWCA에 세계기구 탈퇴와 일본동맹 가맹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39년 9월 9일 무스코가에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10월 5일 조선YWCA연합회 제12회 정기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일본YWCA동맹에 공식 가입을 결의하였고 12월 명칭을 일본YWCA동맹 조선연합회로 변경하였다.<sup>30)</sup>

이후의 한국YWCA연합회는 사실상 정지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듬해인 1940년 8월의 정기총회의 사업토의 내용을 보면 연합회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 기독교여자청년회의 사명 : 지덕체 봉사를 목적으로 해 왔고 이것이 사명이다.
- 2) 기독교여자청년회의 사업대상이 누구인가 : 각기 그 지방에 따라 사업대상이 다르니 각기 그 청년회가 그 존재한 지방의 환경을 연구해서 그 대상을 정할 것.
- 3) 청년회가 조선사회에서 어떤 지위? : 활동 여하에 따라 열심히 사업에 매진할 것

27) 이효재, 『한국YWCA반백년사』, 77-78.

28) 유성희, 『한국YWCA100년의 여정』, 63.

29) 『매일신보』 1938년 6월 9일자.

30) 이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유성희, 『한국YWCA100년의 여정』, 60-70 참조.

- 4) 청년회원의 청년회에 대한 취미는? : 십 년전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다.  
 가. 퇴보의 양책 : 침체 상태에 있는 회를 재발시킬 것.  
 나. 순회에 좀더 힘쓸 것  
 다. 관광이나 이런 회의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최할 일.
- 5) 청년회의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 청년회 인식을 깊이 주도록 할 것.”<sup>31)</sup>

1940년 YWCA연합회의 사명은 “지덕체 봉사”로 쪼그라들었으며, 각 지역의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은 각기 알아서 할 것이라 제시될 뿐, 별도의 정책이나 사업방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회의 긴급한 문제가 ‘청년회 인식’이라 이야기 될 만큼 급격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결국 1940년의 총회는 해방 이전의 마지막 총회가 되었다.

이 글에서 이 시기 YWCA 지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해 논할 여유는 없다. 다만 김활란이 해방 이후 쓴 회고록 등을 근거로 김활란이 이화학당과 YWCA, 그리고 여성교육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을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며 일제에 협력했다는 방식의 역사서술은 그만하면 좋겠다. 잘라 말하건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애당초 천황제이데올로기라는 기형적인 파시즘이 기독교여성운동과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김승태는 천황제이데올로기는 “일본 고래의 신도사상과 충효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천황’의 권위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하여 통치에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은 물론 정신세계까지 지배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얻어내려”한 가공의 논리라고 정의한다.<sup>32)</sup> 달리 말해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종교성과 가부장성을 적당히 섞은 종교적 정치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종교성은 서정민 역시 지적하고 있다. 서정민은 일제 말 한국기독교의 수난은 정교갈등일 뿐 아니라 “교교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천황에 대해 신성 유일의 가치를 지향하였고, 이것이 국수주의 이념과 통합되면서 기형적 ‘종교국가’의 단면까지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다.<sup>33)</sup> 실제로 일제의 특고경찰은 국체를 부정한다는 혐의를 받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심문할 때 종교적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천황도 죄인인가, 천황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천황도 심판을 받는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복종한다는 것은 신사참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이교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가부장성도 마찬가지이다. 윤정란은 1911년 8월 일제의 교육령을 주목한다. 이 교육령은 여성교육을 “부녀자의 덕목”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녀자의 덕목은 남편을 군주와 같이 모시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천황을 의미

31)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제13회 정기대회록” (1940년 8월)  
 32)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25-26.  
 33)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대한기독교서회, 2002), 305.

하기도 했다.<sup>34)</sup> 나아가 파시즘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대개 가정은 군국주의 교육기관으로, 여성은 군인 생산공장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이는 일제도 마찬가지였다. 1937년 조직된 조선부인 문제연구회를 비롯한 일제의 관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시국강연회와 좌담회는 ‘가정보국’, ‘군국의 모성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이 가정보국과 모성찬양에 김활란, 유각경, 고험경, 박마리아, 손메례, 송금선 등의 기독교여성운동가들이 호응하였다. 결과적으로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YWCA의 굴복은 민족, 여성, 기독교라는 세 가지 가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못된 대상과 손을 잡는 것은 때로 자기 파괴적인 일이 되기도 한다.

## 5. 나가는 말

조선YWCA는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의 교집합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여성에게 요구하는 바였다. 당시 기독교여성들에게 민족모순과 여성모순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교육과 지위의 향상은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실력양성운동과 여성운동의 합류는 도시 엘리트 중심이라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며 조선YWCA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손을 잡았다. 이 역시 시대의 정신이 기독교여성들에게 요청했던 바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조선YWCA가 민족모순의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당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촌문제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상과 방법론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는 조선YWCA를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기 성찰과 변화는 부족했으며, 여전히 도시중심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농촌과 민중의 구조적 모순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물과 기름은 잘 저으면 잡시는 섞일지 모르나 곧 분리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조선YWCA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기독교여성운동의 존재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폭압적 권력의 강요 앞에 조직 논리를 앞세워 순응하는 일은 조직은 남았으나 정신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이들은 이후에도 면피와 정당화로 일관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권력과 가까운 곳에서 여러 편의를 누렸다. 그들의 제자인 최용신은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농촌운동에 헌신하다 YWCA의 지원이 중단된지 1년 만에 과로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선생 격인 YWCA의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에서 별로 배운 바가 없는 것 같다. 덕분에 그들이 해야 했던 성찰과 반성은 후배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오늘의 상황은 더 많은 이들과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모순은 지독한 교차성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YWCA가 누구와 손을 잡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인지

34)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217.

---

순간순간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릴 것인가. 혹 고민될 때는 YWCA 목적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왜 YWCA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웃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는 때때로 비틀대면서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잘 설득해왔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는다.

---

**손승호 박사**

손승호 박사는 한국교회를 전공하고 (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 화보집 제작 과정에서 감수위원으로 활동하며 YWCA와 인연을 맺었다. 『유신체제 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한국시민사회운동 25년사』(공저), 『일본의 심장부에서 독립을 외친 청년들을 만나다』(공저)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발제 2

# 해방직후부터 6.25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

김은하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I. 서론

2022년은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한국YWCA는 한국 여성사, 한국 기독교사,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sup>35)</sup> YWCA는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YWCA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조직망을 갖추므로 세계조직과도 연계되어 국제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외교적 채널 역할을 감당했다.<sup>36)</sup>

8.15 해방을 맞이하여 잠시 싹표를 찍었던 대한민국은 5년 만에 다시 한국전쟁에 휩싸여 온 나라가 더욱 피해를 겪었다. 이때, 한국의 재건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이어졌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 구호의 손길을 내민 것은 우연이었을까? 혹시 이를 위한 누군가의 조력이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만일 이를 위한 조력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이 요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본고는 이 시기, 곧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YWCA와 세계YWCA의 국제교류 상황을 살펴보고, 당시 YWCA가 가졌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자료로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발간한 역사자료와 아카이브에 보관된 박에스더의 대외서신 자료와 중국YWCA 아카이브 자료 및 세계YWCA에서 발간한 역사자료집 *Journey of Faith: the history of the World YWCA 1945-1994*와 1952년에 발간된 세계YWCA 회보를 참고하였다.

35)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독교사상」 (4월호 2022): 48.

36) 하희정, “3.1운동 이후 담론공간의 탈정치화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0집 (2015), 171.

## II. 8.15 해방 직후(1946-1950)

### 1. 한국YWCA 재건

한국의 해방(1945.8.15)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왔다. 해방을 맞이한 대한YWCA연합회<sup>37)</sup>는 내부적으로는 연합회 조직을 정비하고, 38년 이후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제연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조직정비:** 해방 이후 연합회는 수도권에 있는 연합회 이사회와 서울YWCA 이사회를 열어 회칙 개정과 임원을 선출하고, 행정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회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1946년 3월, 김활란, 김성실, 신의경, 홍은경 등은 해방 후 재회의 자리에서 정치를 초월한 조직체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복지 사업을 위한 여성단체인 대한YWCA연합회를 재건하고자 결의했다. 이들은 대한YWCA연합회와 서울YWCA 이사회를 열어 회칙을 정비하고, 김활란(회장), 유각경(부회장), 신의경(총무), 김성실(협동총무)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기본 조직을 정비한 대한YWCA연합회는 YWC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을 물색했다. 먼저, UN군 사령관 러취 장군, 군정 고문인 언더우드, 보건사회부 시설국장 슈버커를 찾아가서 면담하고 YWCA 회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 결과, 보건사회부로부터 서울 명동 1가 1-4 회관 임대사용 허락을 받고, 조중구 씨로부터는 대지 5,504평, 논 54,260평을 기증받았다.<sup>38)</sup> 이로써 8.15 해방 이후 한국YWCA 재건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사업 재개:** 한국YWCA는 1938년 이래 흩어진 회원을 모으고 중단되었던 YWCA 사업을 회복하는 재건활동, 구호 사업, 청소년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신규로 지방 조직을 창립하고 회원 심방을 통해 흩어진 회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방 조직은 YWCA 창립 초기에 개설된 광주YWCA(1922.11.5.), 서울YWCA(1922.12.9.), 대구YWCA(1923.4.), 이대 학생YWCA(1922)에 더하여 순천YWCA(1946.3.15.), 대전YWCA(1946.4.10.), 부산YWCA(1946.7.1.), 목포YWCA(1947.4.1.), 조치원YWCA(1948.2.16.)가 신설되었다.<sup>39)</sup>

1947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관사에서 “너희는 몸을 새로 바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YWCA 전국대회가 있다. 여기에는 서울, 광주, 목포, 여수, 부산, 대구 등의 6개 지역 YWCA와 이화, 대구신명, 개성, 명덕, 배화, 풍문여중 등 7개 여학교 YWCA 대표들이 참석했다.

37)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미간행, 서울: 대한YWCA연합회, 1976), 86. 일제시대 한국YWCA의 공식명칭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조선YWCA연합회)였고, 해방후 재건시에도 이 명칭이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대한YWCA로 바뀐 것으로 한국YWCA는 추측한다. 본 고에서는 현재 한국YWCA가 1948년에 사용하던 명칭, “대한YWCA”를 그대로 사용한다.

38) 위의 자료집, 86-88.

39)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미간행, 서울: 대한YWCA연합회, 2006), 634-635.

황애덕이 주제 설교를 맡았고, YWCA대표 참가자들은 지방YWCA 재건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한 상임 간사의 양성, 그리고 비기독교계 학교의 학생YWCA 조직을 위한 논의를 했다. 대회 마지막인 1947년 8월 17일에 김활란(회장), 황애덕(부회장), 최예순(총무), 박마리아(서기), 이마리아(회계), 홍은경(회계)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sup>40)</sup>

### 셋째, 국제연대: 세계적인 회의에 YWCA 회원을 파송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했다.

1946년 2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YWCA 전국대회에 김활란이 참석했으며<sup>41)</sup>, 1947년 7월 22~31일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기독교청년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f Christian Youth)에 장영숙, 강서라가 참가했다.<sup>42)</sup> 특히, 1947년 10월에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항주 세계YWCA협의회는 한국YWCA 1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YWCA 회원들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여기에 참가한 한국YWCA 대표는 김활란, 최이권, 김신실, 황애덕, 양한라, 박마리아, 최예순, 김정옥, 김자경, 핏치 부인 등 10명이었다.<sup>43)</sup> 이 대회는 한국YWCA 입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YWCA 여성들이 세계적인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 세계YWCA 재건

항주 세계YWCA협의회는 세계YWCA 입장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협의회이자 아시아에서 개최된 첫 협의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이 대회의 개최 배경을 아는 것은 전후 여성들의 시대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첫째, 조직정비: 8.15 해방 이후 한국에서 YWCA의 재건이 주요 과제였던 것처럼, 세계YWCA 역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무너진 세계YWCA 재건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1945년 9월에 세계YWCA 임원 루스 라우스(Ruth Rouse, 1938-1946 회장, 영국)와 루스 우드스몰(Ruth Woodsmall, 1935-1947 총무, 미국)은 세계YWCA 본부를 영국에서 스위스로 이전하고 실행위원회를 재개했다.

1945년 11월, 전쟁 후에 모인 첫 실행위원회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세계 각국의 YWCA 재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각 나라의 YWCA 센터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 실항민과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 마지막 주간(1945.11.11.-17.)을 세계YWCA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루스 라우스 세계YWCA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여성이 나서야 할 시대라고 강조하며 YWCA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40)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89-90.

41) 위의 자료집, 88.

42) 위의 자료집, 306.

43) 임옥인 편집, 「서울YWCA 50년사」 (미간행, 서울: 동영인쇄, 1976), 634-635

“전쟁은 항상 여성을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역사상 YWCA가 가장 활동하게 움직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위기의 시대, 전후 시대, 재건의 시대, 고난과 전환의 시대, 이 시기가 말로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여 섬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 이 무한한 필요의 세계는 YWCA에게 있어서 무한한 기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의 친교를 강화하여 그 힘으로 국가 간의 화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sup>44)</sup>

**둘째, 사업 재개: 세계YWCA 확대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세계YWCA의 우산 아래 모든 회원 국가는 한 가족임을 재확인하였다.**

1946년 5월에 개최된 세계YWCA 확대 실행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서로 적대국에 속했던 YWCA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 중에는 끔찍한 전쟁의 생존자로서 적국의 여성과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떠는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회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국가는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임을 재확인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집단 트라우마 치유를 경험했다.

네덜란드 직원 잭 반 스토위겐(Jack van Stoewegen)의 기록에 의하면, 독일 YWCA 회원은 나찌독(Nazidom)의 체제에서 신앙의 양심은 있지만, 자신이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부조리 앞에서 느껴던 자신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고백하며 사죄했고, 피해국의 YWCA 회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화해의 포용을 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회원들은 YWCA가 울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세계 YWCA는 이들이 겪은 치유와 화해의 경험을 아시아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1947년 협의회를 동아시아, 특히 비기독교 국가인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sup>45)</sup>

**셋째, 국제연대: YWCA 여성들은 항주 세계YWCA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제네바에서 항주로 오는 길은 험난했다. 항주 세계YWCA 협의회 준비팀은 각각 비행기, 증기선, 화물선을 이용했는데, 전쟁의 여파로 비행기 운항 축소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항공권 비용은 증가했다. 해상 교통 역시 수에즈 운하의 폐쇄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중국행 항로가 막혔다. 그리하여 이들이 상해까지 도착하는 데 거의 3주나 걸렸다. 심지어 마들렌 바룻과 엘리자베스 팔머는 오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수리를 위해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거쳐서 겨우 상해에 도달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YWCA는 결코 항주협의회의 개최를 포기하지 않았다.<sup>46)</sup>

이렇게 항주에 미리 도착한 사람은 7월에 루스 우드스물, 마리온, 로이스와 베네디체트(Royce and Benedicte Wilhjelm), 8월에 실행위원 마들렌 바룻과 홀다 자르낙, 청소년 담당 엘리자베스 팔머와 코넬리아 반 아쉬 반 워, 핀란드에서 온 실비 비사파(Sylvi Visapaa) 등이었다. 또한, 10월에 코넬리아 반 아쉬 반 워(Cornelia van Asch van Wijck), 캐더린 피콧과 요안나(Catherine

44) Carole Seymore-Jones, *Journey of Faith: the history of the World YWCA 1945-1994*, (London: Allison and busby, 1994), 30.

45) 위의 책, 30-35.

46) 위의 책, 37-39.

Picot and Madame Johannot, 릴리 레이드 반즈(Lilace Reid Barnes), 마토 우스코바(Mato uskova), 빌레(덴마크, Bille), 수잔 드 디트리히(Suzanne de Dietrich)와 훌다 자르낙(프랑스, Hulda Zarnack) 등이 도착했다.<sup>47)</sup>

### 3. YWCA 여성들의 동서교류

항주 YWCA 협의회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세계YWCA의 믿음과 행동으로"(That They Go Forward -The World YWCA in Faith and Action)라는 주제하에 1947년 10월에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버마(현 미얀마), 실론(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스웨덴, 태국 등 23개국이었다.<sup>48)</sup> 대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항주 세계YWCA 협의회

1947년 항주 세계YWCA협의회에 모인 동서양 YWCA 여성들은 우정과 친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화해를 구축하는 데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모두발언을 한 장개석의 아내 쑹메이링(宋美齡)<sup>49)</sup>은 환영 파티에서 "이 시대가 전쟁으로 훼손된 세계가 내적인 믿음과 소명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평화의 리더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항주협의회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 코넬리아는 대의원들에게 "기초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계YWCA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화두로 던졌다. 더불어, 세계YWCA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sup>50)</sup>

- \* Y: 세계교회협의회(CWC)의 청년부 창설과 YMCA, YWCA, WSCF 단체와의 협력관계 재설정
- \* W: 여성을 위한 사역보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YWCA 프로그램 개발
- \* C: 기독교 신앙교육 중심에서 시민단체로서 여성운동의 정체성 강화
- \* A: 국제친선을 통해 평등과 정의의 가치 실현

세계YWCA 이사회는 각 나라의 리더십 훈련을 주요 프로젝트로 삼고 지원하기로 결의했다.<sup>51)</sup> 또한, 항주 세계YWCA협의회 의미의 되새기기 위해 매해 4월 넷째 수요일을 "세계 회우일"로 정했다. 이날은 세계 각국의 YWCA 회원들이 동일한 주제로 함께 예배드리며 친교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sup>52)</sup>

47) 위의 책, 30.

48) 김은하, "20세기 초 팬데믹 시대에 움튼 여성들의 우정: YWCA를 중심으로," 「한국선교신학」 제65집, (2022), 47-74.; 中华基督教女青年会全国协会, 『女青-1947』 (중국: 古籍网, 1947), 3. 항주컨퍼런스를 통한 동서양 YWCA여성들의 교류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보라.

49) 千聖林, "上海 中西女塾(1892~1952) 研究,"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5집, (2020), 53.

50) Carole Seymore-Jones, *Journey of Faith*, 32-33.

51) 위의 책, 40.

52) 이원화, 「서울YWCA 50년사」, 96.

###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YWCA의 지위변화

1947년 항주 세계YWCA협의회 이후 세계YWCA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은 정식으로 세계YWCA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김활란은 세계YWCA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항주 세계YWCA협의회 전후로 세계YWCA 임원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졌다. 대회 개최 전 1947년 8월에는 총무 루스 우드스몰이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한하였고<sup>53)</sup>, 대회 후 10월 말에는 세계YWCA 대표단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 중 한국에 방문한 세계YWCA 신임회장 코넬리아 반 아쉬 반 워과 마들렌 바릇은 한국에 들러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했다.<sup>54)</sup> 이처럼 한국YWCA의 국제적 상호 유대의 결실로 박에스더 고문 총무가 한국YWCA 간사로 부임하기에 이르렀다.<sup>55)</sup>

### 셋째, 항주 세계YWCA 협의회 이후 한국YWCA의 변화

한국YWCA 재건에 있어서 박에스더의 역할은 매우 크다. 1947년 11월에 한국에 부임한 박에스더는 한국YWCA의 행정 체계를 세우고, 각종 프로그램의 방향, 프로그램 전개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박에스더는 한국YWCA의 목적을 세계YWCA의 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했다. 기존 성경연구, 기도모임, 일요 학교 등 종교 교육중심의 한국YWCA 프로그램을 ‘모든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평등, 정의’와 같은 주제 프로그램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1948년 하령회에서 한국사회 현실에 입각한 YWCA 사명을 다짐했던 학생들은 1949년 8월에 재차 전국 학생회의를 개최하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나?”라는 물음을 던지며 학생 생활과 이웃생활, 민족적, 사회적,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토론을 벌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는 단순한 기독교적 신앙운동에서 사회의식을 강조하는 학생운동으로 변모하였다.<sup>56)</sup>

다음으로, 박에스더는 한국YWCA의 조직을 개편했다. 1948년에는 YMCA, YWCA, 그리고 KSCF의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혹은 독자적인 방향으로 학생 기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1948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임시 전국대회는 “청년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주제로 공동 목표하에 YMCA, YWCA, 그리고 KSCF가 상호협조와 공동 운동을 전개했다. 이 대회의 강사는 세계YWCA 간사 엘리자베스 파머(Elizabeth Palmer)와 WSCF 극동 간사인 토마스(Thomas) 박사였다. 반면, 한국YWCA는 점차 학생YWCA를 Y-틴과 대학YWCA로 분리하고, 1949년에는 별도로 직업여성을 위한 청년부 활동(Young Adult Program)을 시작하여 그룹별로 학생기독교운동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sup>57)</sup>

53)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293.

54) Carole Seymore-Jones, *Journey of Faith*, 43.

55)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102. 박에스더는 1947년 11월에 미국 YWCA의 상호협조부의 파견 간사로 임명되어, 한국에서 68년까지 고문총무로 활동했으며, 그 후에는 명예연합회원으로 1980년까지 활동했다.

56)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63.

57) 위의 논문, 96.

마지막으로, 박에스터는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도모했다. 후원회를 통해 연합회 사업을 후원하고, 지방YWCA 후생시설을 직영하여, 자립적 재단 기금을 모아 대외의존도를 낮추었다. 특히 서울YWCA는 1948년 8월, 이때 회원수는 300명, 직원 7명, 이사 20명, 무급간사 18명으로 12개 부서를 두고, 구호사업, 소비조합과 신용조합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클럽활동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했다.<sup>58)</sup> 이로 인해 회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50년 6월까지 서울, 조치원, 대전, 이리, 전주, 광주, 순천, 여수, 목포, 마산, 금촌, 부산, 대구 YWCA 센터가 복원되었고, 동래에서 지역 여성과 소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21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YWCA가 조직되었다.<sup>59)</sup>

### III. 6.25 전쟁 전후(1950-1954)

#### 1. 6.25 전쟁 전후 한국YWCA

항주 세계YWCA협의회 이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YWCA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반도가 광복을 맞은 지 5년 만에 피로 얼룩져 거의 복구불능의 상태로 파괴된 것이다. 게다가, 1.4후퇴로 인해 남부 지역은 그곳으로 몰려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아비규환 상태였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각 지역 YWCA는 전쟁으로 인해 불안하고 혼란했던 사회 속에서 정부가 미처 손댈 수 없었던 그늘진 곳을 찾아 기독교정신으로 구호 운동에 앞장섰다. 1952년에 박에스터가 세계YWCA 회보에 기고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한국YWCA의 사업 방향은 구호사업, 고아 지원사업, 학생그룹 조직화였다.

#### 첫째, 구호사업

한국 동란 중 한국 사회는 홀로된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급했다. 피난하면서 가산을 잃어버리고, 실종된 가족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미망인, 전쟁 미망인, 군경 미망인,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미혼 여성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sup>60)</sup> 무엇보다도 피난민을 위한 집, 음식, 물, 일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각 지역의 YWCA는 센터를 피난민을 위한 처소로 개방하고 정부와 연계하여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

가령, 환승 피난민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YWCA는 기차역에서 물과 음식을 공급했고, 작은 YWCA 건물에 하루에 150명씩 숙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연중 내내 피난민이 많

58) 이원화, 「서울YWCA 50년사」, 51-56.

59) 박에스터, “박에스터가 유엔한국재건 사무소(Augusta Mayerson)로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4.),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4071>).

60) 이영식, “광복 이후 광주 선교스테이션의 의료활동과 대 사회적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4집 (2019), 278.

은 부산과 대구YWCA는 국군병원 환자들을 위해 음식, 세탁, 간호 등을 담당하며 피난민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sup>61)</sup> 특히 광주YWCA는 김필레의 도움으로 1952년 7월 1일, 불우아동복지사업을 위해 성빈여사, 호남여숙, 소녀의 집 등 기숙학교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시작했다.<sup>62)</sup>

### 둘째, 고아원 운영

한국 동란의 수많은 희생자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이었다. 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하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군산의 경우, 북쪽에서 배로 피난 온 사람들,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 미국 기지로 인해 국제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위해 센터를 개방했다.<sup>63)</sup> 목포YWCA는 센터 안에서 95명의 고아 돌보며 이들의 음식, 옷, 교육을 담당했다. 부산YWCA와 거제YWCA는 UN이 운영하는 고아와 피난민을 돌보는 사업을 위탁받았다. 특히 부산YWCA가 위탁 운영하던 동래농예원은 국군병원으로 사용되었는데, 1951년 봄에는 터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의 자립을 도왔다. 이들은 혼돈과 불확실 속에서도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성경공부, 찬양, 바느질, 영어, 학교를 운영하고, 10대, 젊은이, 그리고 가정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강의, 영화, 대중 교육, 기도회, 주제토론 등이었다.<sup>64)</sup>

### 셋째, 학생운동

한국 동란 전에 조직되었던 학생 그룹은 피난처인 부산에서 재조직했다. 가령, 이화여대는 언덕에 텐트와 임시 건물을 지어 개학했는데, 전쟁의 아픔이나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기를 띠었다. 이화여대 학생 전체 810명 중 400명이 YWCA에 가입하여, 봉사의 삶을 실천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예배, 음악, 사회 봉사 운동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부상병을 대상으로 간호, 편지쓰기, 예배 등을 담당했다. 이 외에도 이화고등학교, 무학여고, 성신여고, 신광여고 등 8개의 학교를 운영하였다.<sup>65)</sup>

동란 중에도 진해와 군산 등에 새로운 YWCA 지방 조직이 생겨났으며, 1951년 여름 전남 광주에서 YMCA와 합동 학생하령회,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필승각에서 학생지도자 양성회를 가졌다. 1952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이화여대 강당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라는 주제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11개 지방 대표 30명과 11개 학교대표 20명, 그리고 방청자 20명이 모여 “이 어려운 시기에 YWCA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때 김활란과 황애덕은 강연으로 기도의 힘을 강조하였으며, 김필레는 격려사를 통해 “YWCA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였다.<sup>66)</sup>

61) Esther Park, “The YWCA in KOREA,” *World's YWCA Monthly*, Unpublished, 30-4, 1952: 5-8.

62)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68.

63) 군산YWCA, 「군산YWCA 50년사」, 54.

64) World YWCA, “The YWCA in KOREA,” 5-8.

65) 위의 글, 5-8.

66)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108-109.

## 2. 글로벌 연대

한국 동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YWCA 여성들은 다각도로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를 잇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했다. 전쟁 중에도 YWCA 여성들은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원조 요청을 했으며, 미국인의 귀환 조치로 1950년 9월에 한국을 떠나 있었던 박에스터는 미국에 있는 동안 각 기관에 편지를 보내어 다각도로 국제 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 첫째, 세계YWCA와 연대

**박에스터는 글과 편지를 통해 UN을 비롯한 해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시민권자인 박에스터는 강제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 YWCA 임원과 소통하며<sup>67)</sup>, 해외에 머무는 동안 백방으로 편지를 보내어 한국의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박에스터는 1952년 4월호 세계YWCA 회보에 한국 YWCA의 사업과 비전을 소개하였고, 세계YWCA 본부는 한국을 위한 긴급 지원 창구를 열어 세계 각국의 후원을 독려했다.<sup>68)</sup>

또한, 1953년 1월에는 세계YWCA 헬렌 로버츠(Helen Roberts, 세계YWCA 총무), 아놀드 B. 바우트(Arnold B. Vaught, Church World Service 부실행위), 엘란 리(Elfan K. Rees, WCC 난민관련자문관), 디 티 놀데(D.T. Nolde, UNKR 국제관계위원회 국장) 등 세계교회 대표들이 한국 실사단을 구성하여 한국에 방문하여 박에스터와 만났다.<sup>69)</sup> 그 결과 전 세계로부터 한국YWCA의 재건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 둘째, UNKRA(유엔한국재건단)와 연대

박에스터는 UNKRA(유엔한국재건단) 실사조사단에 참여하여 1952년 8월 17일부터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그 전에 박에스터는 UNKRA에 한국YWCA 재건을 위해 자신을 파송해 줄 것을 자원하여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았다.<sup>70)</sup> UNKRA의 실사 방문 후, 1952년 9월 3일에 유엔한국재건단 어거스타 메이어슨(Augusta Mayerson)은 박에스터에게 실사조사 기간에 보여준 환대에 감사하며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sup>71)</sup>

박에스터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9월 4일)에 어거스타 메이어슨(Augusta Mayerson)에게 회신했다. 박에스터가 제안한 요청은 크게 5가지였다: 1) 여성과 소녀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67) 주영옥, “1950년 10월 26일 주영옥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편지,” (서울:한국YWCA아카이브, 1950.10.26),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4051>.

68) Esther Park, “The YWCA in KOREA,” 5-8

69) Augusta Mayerson, “Augusta Mayerson이 보낸 편지,”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3.1.21),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37>.

70) SM. Vinocour, “SM. Vinocour이 Authur Ruker에게 보낸 대외 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8.29).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9>.

71) Augusta Mayerson,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3)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8>.

따뜻한 공간 마련, 2) 여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 3) 여성 상담을 위한 장소 마련, 4) 10대 여성들이 가정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센터 마련 그리고 5) 여성 자립을 위해 한 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도움 요청이었다.<sup>72)</sup>

어거스타 메이어슨은 1952년 9월 10일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여성과 소녀를 위한 긴급 지원에 대해 더 심도깊은 논의를 제안했고,<sup>73)</sup> 박에스터는 1952년 10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재건단 사무실에서 부산UNKRA(부산한국재건단)이 주최한 세계자원봉사기관 대표자 모임에 박에스터가 참가하여 UNKRA의 한국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up>74)</sup>

### 셋째, 국제회의 참가

한국YWCA의 차기 리더십 개발을 위해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들은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실정을 세계 교회에 알렸다. 1951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에 김신실이 참가했고, 1952년 인도 트라방크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기독교생권퍼런스에 김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6.25 동란 중에 있는 한국의 참상을 알리고, 한국 YWCA 여성들의 헌신과 새로운 운동을 소개했다.<sup>75)</sup>

## 3. '살림'의 실천으로서 기독교여성운동

1954년에서 1955년까지 한국YWCA 목표는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통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데 있었다.<sup>76)</sup>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전쟁 전·후 시기 한국YWCA 살림의 기독교여성운동은 오늘날 YWCA 목적문에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 첫째, 젊은이가 한국YWCA를 주도하는 스튜던트 파워 강화

Y(청년) 운동은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사고와 청년성을 갖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이다.<sup>77)</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YWCA, 세계YMCA, 그리고 WSCF가 주축이 되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고자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한국YWCA, 한국YMCA, 그리고 KSCF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진취적으로 새 역사를 일구어 냈다. 다음은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72) 박에스터, “박에스터가 Augusta Mayerson에게 보낸 대외서신.” (1952.9.4).

73) Augusta Mayerson,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10),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4>.

74) Augusta Mayerson, “1952년 9월 10일에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대외서신,”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1>.

75)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103.

76)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539.

77) 사천YWCA, 「사천YWCA 30년사」 (미간행, 사천: 사천YWCA, 2018), 2

YWCA 회원수이다. 표에 의하면, 한국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수는 급증하였다.

[표1]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YWCA 회원수<sup>78)</sup>

연도	회원YWCA	성인회원	대학YWCA	Y-틴회원	합계
1948년	13	1,243	3학교 275	1,081	2,599
1950년	14	124	4학교 1,562	-	1,686
1952년	12	2,452	9학교 5,807	8,259	-
1953년	12	2,316	11학교 6,401	5,215	8,171

### 둘째, 여성들이 수혜를 받는 주체에서 시대의 주체로 변화

W(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살아있는 운동 체이다.<sup>79)</sup> 8.15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의 휴전까지 국가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여성들은 귀국하여 YWCA 지도자로서 한국사회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종전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에서 울고 있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발돋움하였다.

[표2] 국제회의 및 연수 참가일람표 보완<sup>80)</sup>

연도 및 일정	내용	개최지	참가자
1946.2.	미국Y전국대회	미국	김활란
1947.4.	제2차 세계기독교학생컨퍼런스	노르웨이(오슬로)	장영숙, 강서라
1947.7.	세계지도자협의회	미국(뉴욕)	모윤숙
1947.10.	세계YWCA협의회	중국(항주)	김활란, 최이권, 김신실, 황애덕, 양한라, 박마리아, 최예순, 김정옥, 김자경, 핏치 부인
1947.12.	학생지도자협의회	인도	모윤숙, 김성실
1949.	WSCF총회	캐나다	김폴린
1949.11.20.	세계YWCA지도자 기획위원회 및 동남아시아 YWCA회의	태국(방콕)	박에스터, 최예순
1951.	세계YWCA협의회	베이루트	김신실
1951.5.21.-1953.3.	한국Y전문간사훈련	미국(미네소타)	김봉화
1951.5.21.-1953.3.	한국Y전문간사훈련	미국(뉴욕)	김현자
1951.7.	미국YWCA하기강습회	미국	김옥길

78)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552.

79) 사천YWCA, 「사천YWCA 30년사」, 2

80)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601. 본 도표는 한국YWCA 80년사 자료에 필자가 연구한 항주 세계YWCA 협의회와 제2차 세계기독교학생컨퍼런스 자료 부분을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1952.11.-1953.9.	한국Y 전문간사훈련	미국(뉴욕)	김옥주, 박순양
1952.	제3차 세계기독교학생컨퍼런스	인도(트라방크)	김현자
1955.8.31.-9.15.	<b>세계YWCA협의회</b>	영국(런던)	박마리아, 양매륜, 김회순, 박에스터, 김애마

### 셋째, 교회 중심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정신 강화

C(기독교)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sup>81)</sup> 1947년 항주 세계YWCA 협의회 이후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세계회우일 예배와 국제 친선주간을 지켜 오고 있다. 이로써 한국YWCA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고백을 한다. 다음은 세계회우일과 YW/YM 기도 및 국제친선주간의 공동기도 주제이다.

[표3]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세계YWCA회우일 및 기도주간 주제<sup>82)</sup>

연도	세계회우일(4월)	YW/YM 기도 및 국제친선주간(11월)
1949년		예수는 문제의 해답이시다
1950년	내 믿음과 내 직업	우리 시대의 신앙
1951년	이 세계 안에서 내 위치	-
1952년	세계 평화에 대한 나의 공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953년	나는 변천하는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	생명의 길

### 넷째, 전쟁의 생존자들이 외치는 생명·평화운동

A(회원)운동은 전국에 있는 회원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민주적인 공동체이자 국제운동의 일원인 세계YWCA 회원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운동체이다.<sup>83)</sup> 매년 4월 넷째주 수요일에 드리는 “세계회우일”은 전쟁이라는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가 지속된 야만의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간절함에서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 평화운동이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다양한 생명살림의 운동을 전개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다.<sup>84)</sup>

81) 사천YWCA, 「사천YWCA 30년사」, 2

82)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616.

83) 사천YWCA, 「사천YWCA 30년사」, 2

84)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72.

#### IV. 글을 마치며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전쟁 전·후 시기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현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전 세계를 복구하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다수의 약자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아보는 일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전후시대,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보여 준 한국YWCA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YWCA는 전쟁의 시기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세계YWCA 본부를 통해 세계 각국의 YWCA가 한국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이것은 YWCA가 가진 강한 자매애의 영향이 컸다.

1955년 4월 24일 세계YWCA 창설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미국YWCA 전국대회에서 이원화 간사는 “세계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World links in person)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며, 노리개를 선물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노리개의 매듭처럼 한국YWCA와 미국YWCA,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를 이어 주는 작은 고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속한다(belong)는 것의 위대한 힘을 세계YWCA의 회원이 됨으로써 알았습니다.”<sup>85)</sup>

**둘째, 한국YWCA는 국난의 시대에도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했다.** 김필레는 광주YWCA의 성빈여사를 개설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에 의거하여 “수고 없는 대가는 받지 말라, 배움으로 닦으며 부지런하라, 사랑으로 도우며 감사로 보답하라”를 사훈으로 걸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응하는 “섬기는 교회”로서 신앙을 강조했다.<sup>86)</sup>

이러한 기독교 정신은 한국YWCA를 지탱하는 힘이였다. 국내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꺼이 사회에 봉사하며 되갚았고,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은 귀국 후에 전후 복구를 위해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었다.

**셋째, 한국YWCA는 고통의 시대에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와 도움을 주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실현시킨 배후에는 박에스더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박에스더는 세계YWCA에 한국YWCA가 “조국이 위태롭고 위급한 시기에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sup>87)</sup> 그리고 어떻게 하든 생명을 살

85) 이원화, 「서울YWCA 50년사」, 80-82.

86)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68.

87) Esther Park. “A rural project in Korea,” *YWCA Monthly*, Unpublished, 30-5, 1952: 16-17.

---

리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YWCA의 생명 살림의 정신이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한국인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집은 불탔지만,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과제를 위해 국내외 지도자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든지 한국에서 YWCA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sup>88)</sup>

동서양을 불문하고 YWCA는 시대가 급변할 때,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시대의 징조를 읽으며 한 발 앞서 생명 살림의 정신을 실천해 왔다. 석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제1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YWCA가 출범하였고, 20세기 초 전쟁으로 인해 울고 있는 전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YWCA는 글로벌 자매애를 발휘하여 상처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역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때에, YWCA가 가진 도전적이고, 포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수평적인 정신은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 갈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김은하 박사**

김은하 박사는 제네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임하며,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국제관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된 관심 분야로는 20세기 초의 여성사, 국내 외 YWCA 역사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팬데믹 시대에 움튼 여성들의 우정: 세계YWCA를 중심으로』가 있다.

---

88) Esther Park. “The YWCA in KOREA,” 8. “Koreans are distressed over the deadlock in the turec negotiations, but we are not in despair. They do not sit down and weep over their losses or their object condition, but they are working and planning for the future with hope and faith and courage that justice will come. The continue to build and to train leaders both at home and abroad for the task ahead. The YWCA will not die in Korea, no matter what happens to that country.” (Esther Park)

## 참고자료

- 군산YWCA. 「군산YWCA 50년사」. (미간행, 군산: 군산YWCA 50년사, 2001).
- 사천YWCA. 「사천YWCA 30년사」. (미간행, 사천: 사천YWCA, 2018).
- 대한YWCA연합회. 「한국YWCA 80년사」. (미간행, 서울: 대한YWCA연합회, 2006).
- 김은하, “20세기 초 팬데믹 시대에 움튼 여성들의 우정: YWCA를 중심으로,” 「한국선교신학」 제65집, (2022), 47-74.
- 이영식. “광복 이후 광주 선교스테이션의 의료활동과 대 사회적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54 (2019), 277-312.
- 이원화. 「서울YWCA 50년사」 (미간행, 서울: 동영인쇄, 1976).
- 한희정. “3.1운동이후 담론공간의 탈정치화와 젠더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한국교회사학회지」 40 (2015). 169-213.
-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좌담회.” 「기독교사상」 4월호(2022), 48-81.
-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YWCA 반백년」. (미간행, 서울: 대한YWCA연합회, 1976).
- Carole Seymore-Jones. *Journey of Faith: the history of the World YWCA 1945-1994*. London: Allison and busby, 1994).
- Esther Park. “A rural project in Korea.” *World’s YWCA Monthly*, Unpublished, 30-5, 1952.
- \_\_\_\_\_. “The YWCA in KOREA.” *World’s YWCA Monthly*, Unpublished, 30-4, 1952.
- 中华基督教女青年会全国协会. 『女青-1947』 (중국: 古籍网, 1947).
- 千聖林. “上海 中西女塾(1892~1952) 研究.”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5집, (2020).

### ■ 한국YWCA아카이브

- 박에스터. “박에스터가 Augusta Mayerson에게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4).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4071>.
- 주영옥. “주영옥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편지.” (서울: 한국YWCA아카이브, 1950.10.26.).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4051>.
- Augusta Mayerson.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3.).
- \_\_\_\_\_.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대외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9.10.),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4>.
- \_\_\_\_\_. “Augusta Mayerson이 박에스터에게 보낸 편지.”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3.1.21.).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37>.
- SM. Vinocour. “SM. Vinocour이 Authur Ruker에게 보낸 대외 서신.” (서울: 한국YWCA 아카이브, 1952.8.29). <https://ywca-archive.or.kr/items/show/3959>.

서정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

한국YWCA가 백 주년을 맞았다. 역사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제1세션에는 손승호 박사와 김은하 박사가 발제를 담당하였다.

두 연구자의 발제 내용에 대한 요약이해, 그리고 토론을 위한 확장 논의를 더하여 토론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먼저 손승호의 “일제강점기 조선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라는 논문을 대했다. 한국 YWCA의 시작, 초기역사에 대한 치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손승호는 선행 연구를 섭렵해 가며, 논의의 초반 주제를 ‘민족모순’과 ‘여성모순’의 교집합으로 잡아 YWCA 설립 초기역사에 주목하였다. 시대적 배경으로 3.1운동 이후 일제의 조선 강점정책인 이른바 ‘문화통치’를 거론했고, 민족 내 경향으로 ‘실력양성론’의 대두와 여성단체 설립 확산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 당시 한국 기독교계 여성 리더들의 세계 기독교여성운동 동향에 대한 접촉, 김활란과 김필레로 대표되는 초기 개척자들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이 부분에서 토론자의 확장적 이해를 더하여, 토론의 처음 단초를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 여성사, 한국 기독교사를 더욱 확대하여 설립배경으로 이해하는 방향을 제기한다. 한 조직, 단체가 태동되는 근원성을 좀 더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서이다. 먼저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한국 여성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여성상, 덕목, 그 차별적 구도, 낙후되었던 인식을 명료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어 한국기독교의 전래 수용역사에 있어, 여성 항목에 관심을 더할 이유도 있다. 키워드로만 보면, 남녀유별 관습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고자 한 ‘ㄱ 자 예배당’, 각 선교 스테이션에서 남학교와 거의 동시에 세워진 여성교육을 위한 미션 스쿨, 교회 내 여성 교육, 초기 한국기독교 부흥의 제일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전도부인의 역할, 그러나 한국 여성사의 파격이며, 파이오니어였던 교회가 시기를 거듭할수록 또 다른 여성차별과 억압의 구조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섭렵해 둘 필요성도 있다. 물론 이 논의에서 앞서 제기한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워도 인식과 성찰에서 전제해 두지 않으면, YWCA 설립사의 초점이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YWCA의 초기 리더십이 모두 한국 기독교 전래, 수용, 여성 교육사의 프로세스 안에서 형성된 것을 보아서도 그렇다. 한국 YWCA 설립의 컨텍스트를 확장해 보자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손승호는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유지된 YWCA 목적문에 천착, 1, 2조는 성격규정, 3조는 국제성, 4조는 활동규정으로 분류, 그 시대 YWCA운동의 대강을 정리하였다.

이 부분에서 4조 활동규정에 토론자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4조 나항, ‘천국을 건설함에’에 주목한다. 손승호는 “여성의 전인적 발달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곧 YWCA의 활동 방향이었다”라고 썼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YWCA 설립기에 신학적으로 더욱 논의해 보아야 할 ‘천국 건설’에 대한 분석이 진전되었으면 한다. 사실 이 시기 미국에서 일단의 새로운 신학운동이 널리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름하여 ‘사회복음(Social Gospel)’이다. 이는 ‘사회구원’에 주안점을 두는 신학으로, 당시 미국의 ‘상황신학’이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 신학의 핵심이다. 앞서 YWCA 목적문에 등장하는 ‘천국 건설’은 아무래도 ‘사회복음’, ‘사회구원’과 연동되는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미국 신학의 세례를 직접 받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국내에 이 사회복음 신학을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다. 아마 다수가 보수적 경향의 신학사조를 추종하는 선교사가 대부분이고, 그들 스스로도 개인복음, 개인구원 중심의 신학에 몰입되었던 이유인 것 같다. 다만 1932년 감리교 선교사 하디 외 1인이 사회복음론의 대표적 학자인 라우센부쉬의 책을 “야소의 사회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즉 토론의 확장을 위해 YWCA 목적과 활동에 포함된, 특히 전체적인 한국교회 신학의 분위기로서는 가늠되지 않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사회복음 신학, 사회구원론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더하여 보고 싶다.

세 번째로, 손승호는 YWCA 초기역사에서 사회개혁에는 적극적인 반면, 여성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며, 명확한 비평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대적 이상이나 목표의 문제, 여성 스스로의 여성 운동 도달점에 대한 인식이나 그 함의를 시대적 조건에 의거, 더욱 분석할 이유는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손승호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혼미, 상호 연동하는 기독교여성운동의 자취를 치밀히 정리하였다. 탁월하며, 대부분 사례와 사료에 근거한 정리이다. 더불어 구체적 운동영역인 농촌운동의 내역과 방향, 그 한계도 쉽게 접근하였다. 더불어 YWCA 운동이 지닌 엘리트주의적 계몽운동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선행 연구자들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1934년의 YWCA가 생산한 문서를 예 들어, 8항목의 구체적 목적을 소개하고, 그 마지막 항목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정신을 삼는 부분에서, 체제순응적 가치로 함몰된 것이 아닐까 하는 비판적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의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 해석한 것이 아닌가는, 다시 논의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섯 번째로, 손승호는 일제 말기 파시즘 절정기 YWCA 수난사를 다루었다. 시대사, 한국 기독교 수난사, 특히 그 배경이 되는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해 명료히 서술했다. 그리고 1938년 6월 8일 한국YWCA가 세계YWCA를 탈퇴하고 일본연맹 가입 결정을 한 것이, 이 시기 한국 YWCA의 조종이 올린 사건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 목적, 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달리 부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다만 당시 일본YWCA의 방향, 내역을 조금 더 조사 첨부하면, 그 전개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 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손승호는 결론에서, YWCA운동이 연대하는 상대와 그 선택, 그리고 운동성의 실현을 위한 이웃 설득을 키워드로 마무리하였다. 적절한 간추림이며, 빠있는 역사적 성찰이 아닐 수 없다.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으로 김은하의 “한국전쟁 전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이라는 논문을 대했다. 한국YWCA 운동의 해방 이후사, 전쟁 시대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었다. 역시 논지의 주제나 키워드를 따라 함께 공감하며, 논의의 확장, 토론의 단초를 더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김은하는 해방 후 한국YWCA의 재건과 항주 세계YWCA협의회에 대한 전망을 정리했다. 한국YWCA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YWCA 공히 그 재건사는 조직 정비, 사업재개, 국제연대라는 항목으로 접근했는데, 탁월한 안목이다.

토론자의 의견을 더하여 붙인다면, 특히 한국YWCA 재건기의 시대상황, 정치사, 기독교사의 이해를 더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일제하의 터널을 벗어나자 마자, 한반도는 분단상황으로 치달았다. 분단, 군정, 좌우 대립, 분열 국가의 설립 과정에서 한국 엘리트 사회, 특히 여성 리더십의 혼란과 방황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 논의이지만, 해방 당시 한국기독교의 편재는 북한 7, 남한 3 정도의 배분이었다. 교회, 기독교 주도의 중심축이 북한에 편중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사회주의 정권과 대치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기독교 세력이 분단 이후, 전쟁 과정에서 월남한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상황 조건 하에서 YWCA 재건사가 지닌 특성과 한계를 명료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YWCA 운동에서 북한 지역이 지닌 의의, 좌절, 남하, 한국 YWCA의 대표성 문제 등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인 대표성이 서울YWCA가 중심이 되는 지역적 편재도 있다. 그러나 1947년 항주 세계YWCA 협의회 대표단이 한반도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추는 문제 등도 분단 상황의 사료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이 시기 한국 기독교사는 교회 내 분열과 지역 간 갈등의 구조로 함몰된다. 북한에서 대거 남하한 기독교 세력은 한국기독교의 한 축을 이루었고, 사회운동, 이데올로기 투쟁의 선봉에 선다. 더구나 일제 말기 신사참배로 대표되는 체제 순응의 지수 여부로 장로회, 감리회를 필두로 전 교파가 분열의 심연에 빠진다. 여기에 신학적 완급의 차이, 즉 진보와 보수의 갈등, 사회인식에 대한 차별로 대 분열의 서막도 올랐다. 이는 기독교 여성운동, 청년운동,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 전개 속에서 진행된 YWCA 재건사와 세계YWCA와의 연대 문제의 관련성을 더욱 조밀하게 살

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긴다.

두 번째로, 김은하는 항주 세계YWCA 협의회를, YWCA 여성들의 동서교류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나갔다. 적절한 관점이다. 특히 이 세계 대회의 여러 나라 참가자들, 주도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충실히 그 이해를 더해주었다. 내용과 전개에 대체로 동의, 공감하면서, 몇 가지 첨언을 더한다. 우선 이 동서교류의 장소가, '왜 항주이었나'에 대한 응답을 좀더 치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시대는 막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시기이고,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 내에는 '국공 세력' 간의 치열한 내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얼마 후 공산 중국이 전토를 장악하고,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거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때이다. 중국의 정치, 사회, 종교, 특히 기독교가 거대한 혼란에 직면한 때이다. 이와 관련 세계 여러 나라의 대 중국 정책도 요동치는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그 장소가 중국 항주인가' 라는 응답은 역사서술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세계대회가 1947년 10월에 개최되었다. 김활란을 비롯한 한국대표단도 참가하였다. 당시 한국 상황은 분단, 그리고 아직 남한은 대한민국 설립 이전 미군정 상황이었다. 물론 YWCA 운동은 국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 활동체의 특징을 지닌다 할 수 있으나, 한국YWCA를 대표하는 대표성에서 특기할 상황은 없는가 하는 문제도 일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과 같은 비독립국가로서 국가 건국 이전의 지역대표도 포함된 케이스를 살피는 것도 비교 고찰의 필수가 아닐까 한다.

세 번째로, 김은하는 한국전쟁 전후의 한국YWCA 역사를 '살림'의 실천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내었다. 공감이 깊다. 여성 구호, 고아원 운영, 학생운동 등이 중요항목이며, 당시 세계YWCA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연대 강화, 지원 유치 등의 성과를 기록해 나갔다. 대체로 적절한 전개이며, 타당성 높은 역사기록이다. 다만 더욱 구체적인 한국 전쟁기의 YWCA의 기여와 활동, 실천의 폭을 명확히 해나갈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즉 한국 전쟁기 한국YWCA는 여성 구호, 고아원 운영, 학생운동, 세계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서술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일반적이다. 적어도 당시 다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조직의 여러 기여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아니 기준에 따라 전체 활동 중에 몇 할을 YWCA가 이룩했다는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이 시기 각 교파, 각 선교단체, 그 밖의 세계 여러 협력기구의 한국 브랜치 등등도 전쟁상황의 한국사회에 다대한 기여를 한 기록을 내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 YWCA가 한국전쟁 상황에서 이룩한 성과를 물량,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성과지수 등등, 다른 단체나 조직과 상대 비교적으로 구체적인 성찰이 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김은하는 전쟁 이후, 한국YWCA의 정신 변화에 주목했다. 결국 목적과 이상의 재설정 문제를 다룬 것이다. 적절한 끝 정리가 아닐 수 없다. 스튜던트 파워 강화, 수혜 대상의 여성에서 시대주체로 전환되는 여성, 교회중심 운동에서 세상으로 더욱 나아가는 운동, 그리고 전쟁을 기억하는 평화운동으로 그 설정 주제를 간추렸다. YWCA의 새로운 시대 사명과 활동 방향에 대한 정

---

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부분에는 구체적 통계, 목록 등을 갖추어 논지를 보강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YWCA의 국제연대, 인재양성,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등에 그 역사성을 함축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계와 반성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서, 역사적 비평과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는 역사가의 안목을 더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한다.

두 연구자의 논문을 읽고, 듣고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

**서정민 교수**

서정민 교수는 제7차 한·일YWCA 협의회에서 『1920년대 한·일 기독교 역사 상황과 기독교 사회운동』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YWCA와 인연을 맺었다.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회를 가르쳤고 현재는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종교사학을 가르치고 있다.

올 해는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쉬을 갖고 있으며 안식년 동안에도 여러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회운동사』, 『제중원과 한국기독교』, 『日韓キリスト教關係研究』 등 한국어와 일본어 저서를 다수 발간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

## ‘한국기독교학생운동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에 관하여<sup>89)</sup>

도입방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 0. 글 앞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 기독교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의 YWCA를 생 각해보려는 현 YWCA의 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발제자는 YWCA의 목적문을 기본으로 하여 읽어 내려갈 것이며, YWCA를 운동체로 바라보기 위 해 단체의 명칭이자 목적인 Y-W-C-A의 순서를 따라 갈 것이다.

1922년 창립 이래 1997년까지 여섯 번 수정을 거친 목적문의 중심 주제에 대하여 최만자 선생 님은 목적문 해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셨다.

YWCA 목적문은 변경되어 오긴 했지만 초창기부터 같은 맥락으로 유지된 핵심은 ‘청년성’, ‘신앙 의 실천’, ‘신앙 안에서 영·지·체 합일적 인간 육성’, ‘예수의 교훈 실천’, ‘온 인류의 하나 됨’, ‘하

89) [발제 취지]

1970년대 이후

1. YWCA초기 활동의 주체였던 '학생'들의 주도과 참여 변화
2.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운동의 의미
3. 역사 변화에 따른 대학/청년YWCA 조직 및 활동의 변화과정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특성
4. 청년이 주도하는 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발제자의 한계]

YWCA의 활동에 간접적 연대활동 밖에 없다는 점  
문서와 활동가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만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러므로 이 발제는 제2.5자의 입장에서 관심과 관찰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며, 주제넘은 지적이나 의견 이 될 수 있는 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나눔 나라로 표현된 이상 사회 구현', '이를 위한 운동의 주제'이다. (YWCA 목적문 이해, 최만자, 2016)

목적문은 조직의 시작 이유이며 존재해야 할 근거이므로 목적문에 기초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 A (알파) 바라보며

글을 시작하면서 한국YWCA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Y	Young	》	Youth
W	Women's	》	Womans'
C	Christian	》	Civil
A	Association	》	Achievement

- A-1. 젊은이를 통칭하는 Young에는 청소년, 학생, 청년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시대에 호응하고 대응하면서 '젊은 OO', '젊게 OO하는'의 수식어로 전환되었으며, 기독교 학생운동의 쇠퇴를 맞으면서 2030 나아가 40까지 포괄하는 [청년]으로 정착된다.
- A-2. 한국YWCA의 회원, 활동 자격이 되는 [여자, 여성]은 지도력으로 성장하면서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 [여성운동]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대상으로 읽히게 된다.
- A-3. 기독교성은 운동의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 기준이 활동의 내용으로 풀어지면서 시민, 사회의 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에 반복적으로 기독교성의 회복 또는 자각에 대한 욕구와 위기감이 분출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 A-4. 함께 모여 각자의 힘으로 전체 운동을 해내는 YWCA의 조직적 운동 특성이 성과를 만들어 내야 조직이 유지되는 현실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와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YWCA는 역사 속에서 YwCa, YWca, yWcA, ywcA 등 요청과 역할을 변화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 지내왔다. 100년을 맞이하면서 이 변화 중 Y-C, W-C의 연결점을 살펴, 활동의 주체와 주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번 발제의 목적이다. 발제는 이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A-5. 발제자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며, 대안 제시보다는 발제 요청의 취지에 맞게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 특히 통합의 역사와 독자화를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기독교성]에 관해서는 95주년 작업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살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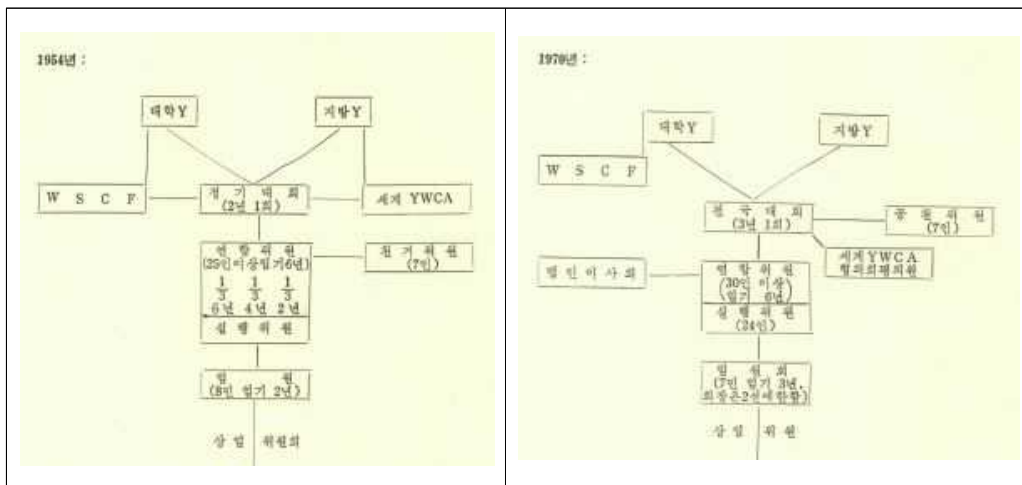
# 1. Y (Young) : 학생, 청년, 대상성 => Youth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체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8월, 제33회 전국대회에서 개정 채택)

## 1-1. 목적문을 중심으로 본 Young의 위치와 역할

1922년 목적문 3항에 [...세계기독교학생동맹(현,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WSCF)으로부터 연락케 함]을 명시함으로 기독교학생운동의 큰 줄기와 함께 간다는 취지를 확인하였다.

1922년 목적문 2항과 1940년 목적문 2항에 [...각 학교...]를 명시함으로 학생이 주체로 들어감을 명시하였고, 1950년 목적문 3항에서는 [...각 대학교]를 명시함으로 대학생을 구성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1954년 목적문 개정 이후 '학교 또는 대학교'는 목적문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창립 목적문에서 이미 WSCF와의 관계를 설정했고, 이는 조직도에서 여전히 살펴볼 수 있다. 1924년 황애덕 선생님이 조선YWCA 회장 재임기간에 학생YWCA는 WSCF 회원으로 가맹하였다.



## 1-2. 기독교학생운동통합의 과정을 통해 본 Young의 위치와 역할

'학생부를 정식으로 대학생부와 Y-틴부로 분리 독립시킨 것이 1953년이었으며, 1947년에 조직된 한국기독교학생회(KSCM)와 협조관계가 성숙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한국YWCA 반백년,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1976)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는 해방 후, 한국전쟁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동시에 YWCA, YMCA 두 Y 소속의 학생들과 KSCM의 학생들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WSCF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1955년 명동정책협의회의 합의에 이른다.

당시 상황을 오재식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구술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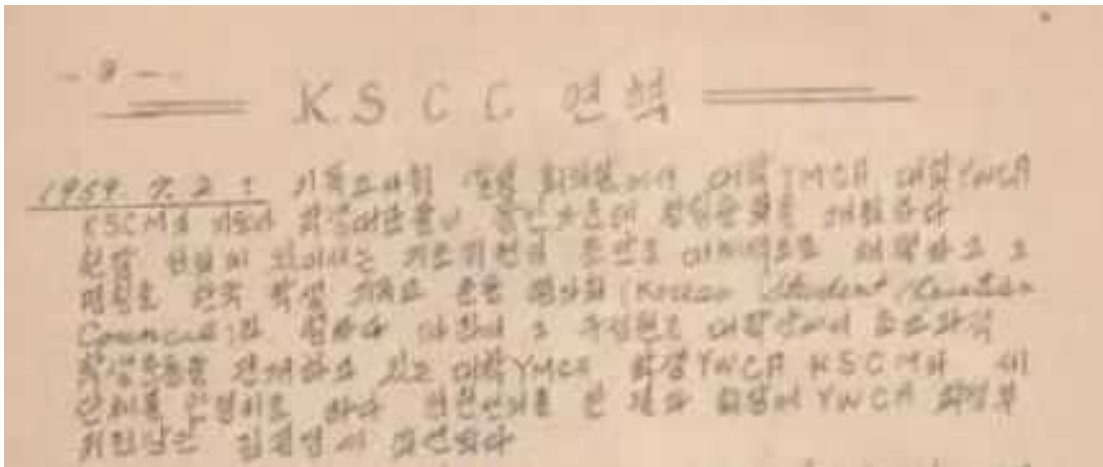
1948년 대한기독교학생회전국연합회(KSCF)를 결성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출범 당시에는 가장 규모가 컸던 와이엠시에이(YMCA)나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학생들도 연합회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 그 뒤로 두 조직은 각각 산하에 자체 학생연맹을 조직하게 됐다. 그래서 연합회에는 두 조직에 속하지 않는 단체의 학생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 1949년 9월 국내 기독교학생운동 조직과 국제연대기구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세계학생기독교연맹의 아시아 총무인 윈번 토머스를 초청해 두 '와이'와 연합회가 공동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세 조직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기독교학생운동협의회를 조직할 것과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에 가입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가, 1954년 3월에야 협의회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명동정책협 계기로 기독교학생회 재통합, 오재식, 한겨레신문, 2013년 2월 5일)

WSCF의 한 국가 한 조직의 에큐메니칼 원칙도 중요했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과 나라의 재건을 위해 기독교정신으로 '무장한' 학생 엘리트들의 의지 또한 중요했을 것이다.

당시 학생, 더욱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입학과 동시에 사회적 지도층이 되며,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이후 사회의 모습을 그려가는 계층이었다. 기독교 대학생은 기독교 신앙의 실천으로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그룹이었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회의, 현실 속에 교회가 부딪힌 난관, 기독교인으로서의 난관 등을 돌파하고 한국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 방향 및 사명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를 벌였다'(한국YWCA 반백년,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1976)

한국 내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의 통합 노력은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가 1959년 7월 2일 창립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 KSCC 연혁

1959. 7. 2 : 기독교서회 빌딩 회의실에서 대학 YMCA 대학 YWCA KSCM의 지도자 학생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현장 심의에 있어서는 기초위원의 초안을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그 명칭을 한국학생기독교 운동협의회 (Korea Student Christian Council)라 정하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대학안에서 초교파적 학생운동을 전재하고 있는 대학 YMCA, 학생 YWCA KSCM의 세 단체를 인정기로 하다.

임원 선거를 한 결과 회장에 YWCA 학생부 위원장인 김영정씨 피선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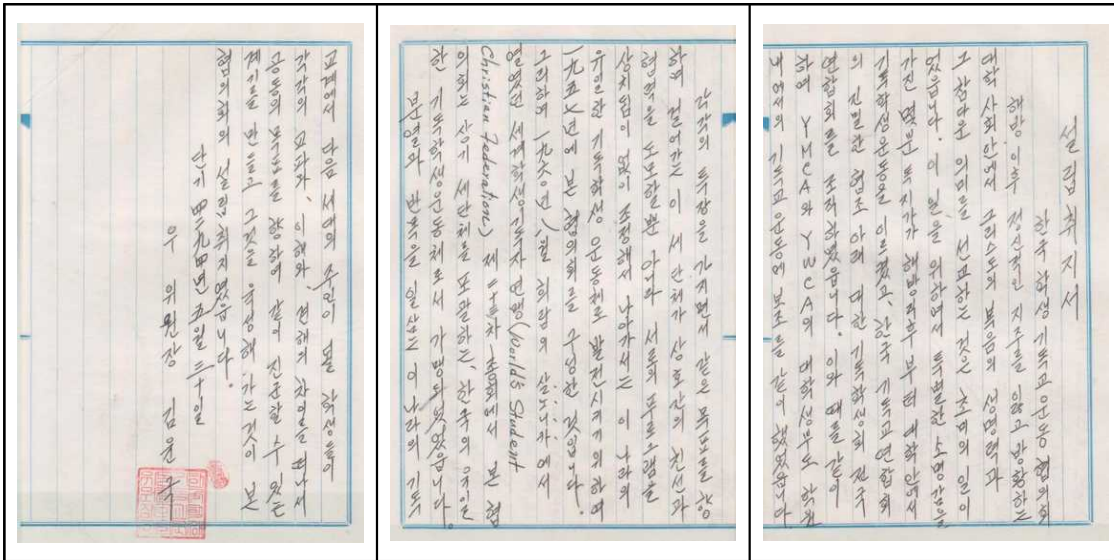
〈1959년 KSCC 창립총회 임원〉

회 장:김영정(YWCA)

부회장:김윤국(KSCF), 김용옥(YMCA)

명동협의회 이후 1955년 8월에는 KSCC 산하의 「서울시 SCM협의회」를 YMCA, YWCA학생부와 KSCF 서울시 연합회 3개 단체 협의회로 조직키로 하고, 위원장에 오기형(YMCA), 총무에 신성국(KSCF), 서기에 김현자(YWCA)를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1955년 이후 KSCF 내부의 분열 때문에 1957년까지는 전혀 함께 할 여유가 없었다. 통합 총회로 수습되고 난 후에 KSCM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지도체계의 정착과 상임총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화를 기하는 과정에서 10년만인 1959년 7월 2일 한국기독교학생운동협의회(KSCC)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협의회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였었다.(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50년사, 1998)

통합의 움직임은 아래와 같은 취지문을 통해 이유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설립취지서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 해방 이후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방황하는 대학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과 그 참다운 의미를 선교하는 것은 초미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한 소명함을 가진 몇 분 독지가가 해방 직후부터 대학 안에서 기독교 학생 운동을 일으켰고 한국 기독교 연합회(현 NCCK)의 긴밀한 협조 아래 대한 기독교학생회 전국연합회(KSCF)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YMCA와 YWCA의 대학생부도 학원 내에서의 기독교 운동의 보조를 같이 하였습니다.

각각의 특장을 가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세 단체가 상호간의 친선과 협력에도모할 뿐 아니라 서로의 프로그램을 상치됨이 없이 조정해서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유일한 기독교학생운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7년에 본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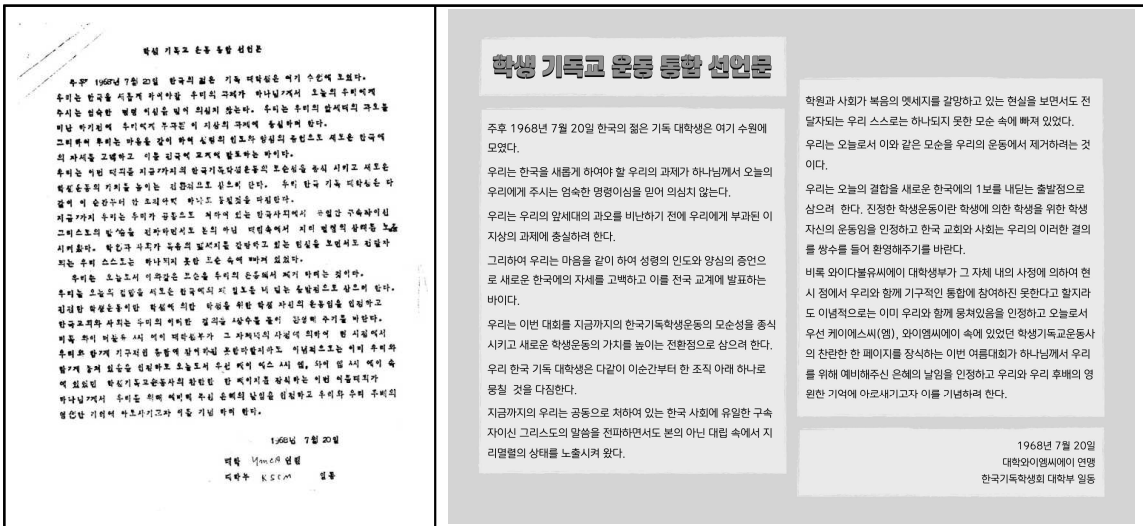
그리하여 1960년 8월 희랍(그리스)의 살노니카(데살로니카)에서 열었던 세계학생기독교자연맹(WSCF) 제23차 총회에서 본 협의회는 상기 세 단체를 포괄하는 한국의 유일한 기독교학생운동체로서 감행되었습니다.

분열과 반목을 일삼는 이 나라의 기독교계에서 다음 세계의 주인이 될 학생들이 각각의 교파와 이해와 견해의 차이를 떠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같이 진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것을 육성해가는 것이 본 협의회 설립취지였습니다.

단기 4294년 (1961년) 5월30일 위원장 김윤국

대학YWCA와 다른 두 단체들도 독자 활동과 연합활동을 병행하며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대학기독교 학생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8년 한국학생기독교운동에큐메니칼정책협의회에서 3단체 통합 안이 제시되었는데, YWCA에서는 찬반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였고,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1968년 5월 4일 통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학생 3명, 교수 3명, 실무자 3명으로 구성된 대학생부 특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였는데, 논의 결과 [독자성 유지]로 결론이 났다. (한국YWCA 반백년, 한국YWCA 50년사 편찬위원회, 1976)



아래는 찬성과 반대의 내용 요약이다.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회록 및 부록 1968-1969)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힘있는 증거를 위해서</li> <li>지도력 분산의 방지</li> <li>재정적 빈곤 극복</li> <li>교회일치의 영향</li> <li>에큐메니칼운동 실현</li> <li>단체간의 알록(알력) 방지</li> <li>효과적 활동을 위해</li> <li>국제적인 유대의 일원화</li> <li>학생 자주적인 운동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WCA의 주체성(self-identity) 상실</li> <li>YWCA 전체의 지도력 공급 불가능</li> <li>회원의 연속성 절연</li> <li>세계적 연관성 상실</li> <li>여성지도력 배양의 기회 감소</li> <li>여성의 요구와 관심에의 적응이 불가능</li> <li>평신도 운동으로서의 특색 약화</li> <li>-</li> <li>-</li> </ul>

[독자성 유지]는 아래 입장문을 통해서 구체화 되었다. (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전략)… 오늘 여름대회에 임하여 KSCM과 YMCA 두 단체의 통합발표와 아울러 대학YWCA는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중략)

3.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여성지도력의 함양을 절실히 느끼는바 YWCA 대학생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통합체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우리의 독특성을 지향할 것을 결의한다.

1968년 7월 20일 전국대학생YWCA연맹

위 입장문은 학생기독교운동통합선언문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결정은 대학YWCA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며 나갈 방향을 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 1-3. 독자화 결정과 이후 활동을 통해 본 Young의 위치와 역할

[독자화] 결정 배경에 대해 장화인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YWCA가 KSCF에 가담하지 않게 된 이유는 KSCF의 활동 범위가 YWCA의 중점 사업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었다. KSCF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정치적이고 상부 지도부가 남성위주인데 반해 YWCA는 사회개혁과 여성의 지도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YWCA는 그 특수성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연합운동에서 발을 빼기에 이르렀다. (중략) KSCF는 오래지 않아 그들의 필요는 바뀌게 되었지만 여성들의 필요는 금방 변화되지 않았다. (이방세계에서 활약한 YWCA 여인들, 현존사, 2000)

YWCA 기독교학생운동 독자성이라는 결정을 통해 yWca에서 W가 활동 방향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당시 시대상황을 돌아본다면 절절한 요청에 의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결정 후 1969년 통합 KSCF 출범이후 학사단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서울YWCA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소비자운동 등에 참여하였고, 1971년 전국 대학생YWCA 동기대회에서는 “스튜던트 파워를 사회정의 실현에”라는 주제를 내걸고 1970년대를 통하여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다.(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1972년 대학YWCA 회원은 1,906명으로 집계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에는 782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1976년 대학YWCA 회원은 1968년 기독교학생통합논의 이후 421명이라는 최저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위축된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 첫째, 조직체 가입을 회피하려는 개인화 현상
- 둘째, 학도호국단 창설로 인한 자치적 활동 제약
- 셋째, 학생운동 기능이 강제적으로 축소당하여 부정적 영향력으로 작용  
(한국YWCA 80년사, 2006)

1985년 이후 캠퍼스 YWCA는 거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YWCA만의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신행 선생님은 약화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대학YWCA와 YMCA, KSCM 모두 자기 캠퍼스에서 자기 정체성을 굳혀가기 전에 ‘통합’이라는 해체 과정과 ‘학사단’이라는 개체 캠퍼스를 부정하는 동원 과정에 휘몰리게 됩니다. (한국YWCA 100년의 여정 중 이신행, 인터뷰 자료 중)

유성희 선생님은 YMCA의 경우는 기독교학생운동이 일반학생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기독교학생운동의 신학적, 운동론적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써 기독교학생운동이 일반 학생운동을 견인하기 보다는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활동의 약화는 대학YWCA의 지역 이관으로 연결되었고, 창립부터 한국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대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 이론을 적절하게 제공했던 대학YWCA의 신학적, 운동론적 담론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과 함께 기독교여성운동의 지속적인 리더십이 양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 1-4. 2000년 후반 활동을 통해 본 Young의 위치와 역할

기독교학생을 모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던 대학YWCA는 1976년 대학YWCA 클럽 연합회에서 회원 YWCA로 이전하게 된다.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청년YWCA는 1990년대 후반, 일반회원과 청년회원의 구분이 모호하고, 청년YWCA 활동에서 운동의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회원부로 통합되어 2002년부터 청년전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재건 배경, 김수진 간사, 2017년 10월 13일)

이 배경에 대해 김수진 간사는 인적, 재정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취업난, 경쟁 과열로 인한 개인화 등)로 인해 조직이 약화되면서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이 진단은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의 축소와 대학생활이 스펙을 위한 과정으로 되면서 커리어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기독교학생운동 전반이 어려워졌다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2022년 현재 대학·청년YWCA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8개 회원YWCA에서 254명의 대학·청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산하 청년위원회는 ‘한국YWCA의 청년 활동가로서 자유롭고 수평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청년이 원하는 세상, 청년의 YWCA를 만들어가는데 힘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열린 2022년 YWCA 청년 선교 정책 간담회에서 조은지 부회장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활동하지만, YWCA 조직은 교회가 아니기에 기독교 신앙 유무로 청년회원들을 모집하고 활동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YWCA의 활동 기반인 기독교적 사상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회원에게 목적문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Y-C가 Y-c 정도의 관계성으로 유지되며, 이는 기독교성이 시민성을 갖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 생각한다. 이는 [기독교성] 내용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다.

## 1-5. Young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에 대한 정리

### 1-5-1. 명사로서 YOUNG

창립 이후 YOUNG (청년, 젊은, 학생)은 YWCA 출발의 ‘동력’이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서 1950년대를 거쳐 1970년까지 10대-30대 활동했던 분들은 당신들 자체가 YOUNG이었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활동 또한 ‘YOUNG’했다. 이 분들이 지도력이 되면서 [학생] 그룹을 통한 미래 지도력 선발, 훈련과정이 필요했으며,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단체의 미래 지도력 양성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갖게 되었다. 사회에 대해서는 학생 주체의 운동이지만, 한국YWCA에서는 지도력 양성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학생운동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은 도움을 주거나 지지 세력이 되어야 한다. 대학YWCA는 이전 주체로서의 청년보다 다음 세대 YWCA의 지도력이 되어야 하는 과정의 위치여야 했지만, 주체로서가 아니라 운동을 위한 차세대가 된다. 상상이지만 만약 통합 논의에서 학생, 교수, 실무자의 3:3:3의 비율이 아니라, 학생 7, 실무자 2, 교수 1이라면 찬성과 반대 논의가 진행되었을지 궁금해진다.

명사로서 정확한 위치와 활동을 갖고, 청년의 준비 단계로서 학생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 1-5-2. 형용사로서 YOUNG

1960년-1970년대 사회적,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운동의 다변화 속에서 명사로서의 YOUNG 선배님들은 청년 시기가 지났지만, 사회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세대로 급부상하였다. 세대적 청년기를 지나고 있지만 활동과 영향력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아니 오히려 더욱 확대된 위치를 갖게 되면서 이미 명사 YOUNG으로 자리 잡은 분들을 진취적, 진보적이라고 설명하는 형용사로서 위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년기라는 기간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청년적’이 된다.

[한국YWCA 100년의 여정]을 집필하신 유성희 전 사무총장의 설명란에 ‘2004년 36살의 나이로

한국YWCA연합회 최연소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15년간 ... 3개 법인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로 소개되어 있다. 2004년 당시에도 파격적이었다고 느낄만큼 청년의 나이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향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세대의 '젊은 활동'이란 의미의 꾸밈말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 1-5-3. 부사사로서 YOUNG

2000년 후반부터 급속도로 단체에 가입하여 소속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청년의 비율과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단기 프로그램이나 일시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통로를 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young해야 YOUNG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가 되었고, 이는 YWCA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YOUNG을 키우고 만드는 기회보다 많은 청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young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었다.

young하게 활동하는 것이 YOUNG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다.

#### 1-5-4. 정리

기독교학생으로서의 YWCA 운동은 학생이 주체에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학생이 하는 운동에서 '학생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대학생YWCA가 한국YWCA의 신학적, 조직적 방향을 설정했던 기능이 상실되면서, 학생을 위한 운동은 학생이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며 오히려 아니어야 하는 운동이 되었다.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대학YWCA는 YWCA 회원 중 대학생의 신분에서 청년으로 묶이게 되었으며, 현재는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청년 나이대를 공유하는 세대로 묶이게 되었다.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는 (기독교)청년운동, (기독교)여성청년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청년의 범주에 [학생]이 포함되어 학생의 사회적 신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사라지거나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W (Women's) : 여성, 주체성, 정체성 => Womans', 특수성, 단독성(독자성)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체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2년 목적문에서 1950년 목적문까지 [...청년여자...]를 구성원으로 명시하였으나, 이후 1954년 목적문부터는 [...젊은 여성...]으로 학생과 청년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초기 역사에서 조선의 독립과 조선 여성의 해방이 세계 역사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자각한 조선 YWCA는 ... 독립적 의식을 가졌다. 조선YWCA는 ... 주체적으로 세계 조직에 가입 ... 연합회가 지역 조직을 만든 사례인데, 이러한 경우는 세계YWCA 역사에서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유성희 선생님의 글에서 보듯이 YWCA의 시작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갈망과 식민지 안의 식민지적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해방이라는 '2가지 해방'을 목표로 하며, 실천 현장에서 우선 순위의 문제와 가치 선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한 조직에서 두 가지 우선 목표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여성의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농촌사업과 농촌계몽운동으로 독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이 가능한 YWCA의 위상이 세워진다. 해방 이후 시대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며, 기독교학생운동 통합 과정에서 [독자화]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YWCA를 기독교'여성'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할 정도로 '여성'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는 [독자화] 선언으로 분명해진다. 그러나, YWCA에서 여성은 시대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부분으로 위치하는 일이 허다하며, 기독교학생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독교학생운동에서 [여성]이 부분으로 전략하는 일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대학YWCA를 통해 여성 지도력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다. 이는 YWCA 기독교학생운동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여성운동이며, 기독교'여성학생'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3. C (Christian) : 기독교성, 정체성, 특수성 => Civil, 시민성, 보편성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체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2년 목적문에서는 […야소기독(예수그리스도)을 신앙케 하여…], 1940년 목적문과 1950년 목적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인으로서…]라고 공동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1940년은 3항에, 1950년은 1항에 배치하는 차이가 있다.

1954년 목적문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로, 1956년, 1973년 목적문에는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997년 현 목적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으로 수정되었다.

애국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여성지식인 또는 여성지도자로서 활동한 대부분의 여성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계 사립학교 출신이었다.(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기독교신앙은 조직 활동 중 [하명회]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외부 사람에게 낯선 단어인 하명회는 학생들의 연합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나아가 청년운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초창기는 철저한 기독교적 모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분위기였다고 한다.(한국YWCA 80년사, 2006)

1976년 이후 한국YWCA는 회원들을 기독교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기독교 정신으로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기독교 운동의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1980년에는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1981년 1월에 열린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신앙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토의 시간을 가졌다.(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1995년의 회원정책협의회 결의, 2002년 지역활동가 모임을 통해서 한국YWCA는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소그룹 조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새벽종소리]라는 영성 교재를 통한 영성 훈련은 새롭게 전개되는 회원운동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이었다.(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이 활동은 2017년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로 결실을 거둔다.

한국YWCA가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 개신교회 개별 교회들이 어려울 때마다 [초대교회] 신앙을 들고 나오는 모습과 유사하다.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 시작된 종교이다. 한국YWCA도 출발한지 100년이 된다. 과거 회귀를 통한 [정신 재무장, 신앙 재정립]의 시도가 여기저기서 엿보인다.

직원수양회 진행표는, 일제 강점기, 1970년대 어느 기독교 수련회 행사표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

는 주제이며, 강사가 전부 ‘목사’이다.

청지기 훈련, 하나님의 참뜻 알기, 영적 지도자의 자질, 심령부흥 모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있는 성서의 인물이 되자, 코이노니아 공동체 형성…(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YWCA 기독교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성 교재를 만들었고, 발간사에서 이명혜 선생님은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취지를 설명하셨다.

YWCA는 청년성과 기독교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Y다운 리더’를 양성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청년성과 기독교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 YWCA 청년들의 영성을 훈련하여 기독교성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을 위한 YWCA 영성훈련, 이천진, 나눔사, 2017)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100년 동안 수 많은 선각자들과 선생님의 활동으로 영성자료를 만들 수 없었을까? 기독교성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서, 성경 해석에서가 아니라 YWCA 활동에서 찾을 수 없었을까?

개신교의 전통에 서있는 한국YWCA이며, 평신도 활동가들의 역사를 간직한 조직으로서 근간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목회자에게 위임하는 모습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독교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김현자 선생님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독교 국가의 YWCA조차 확실한 기독교인 또는 세례교인 대신 ‘YWCA의 기독교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도 아니고 그냥 사회단체도 아닌 YWCA의 고민이 었다. (사랑한 시간을 찾아서, 오혜련, VIVI2, 2019)

그러나, 한국YWCA의 [기독교성]은 왜? 조직의 위기의 순간에만 절실해지며, 과거의 기독교 주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학생은 과거에 매이지 않으며, 오히려 오지 않을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주체였고, 기독교학생은 그 꿈의 원천을 기독교성에서 찾고, 기독교학생운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유독 기독교성에서는 학생도 운동도 자신의 위치를 잇게 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본다.

한국YWCA의 시민운동으로서의 위치는 한국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이 시민운동은 [기독교성]이라는 압축파일을 풀어 세상과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독교성이 시민운동과 한 흐름에서 이해되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독교신앙’보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이 둘 사이의 경계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냐면 태동이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 4. A (Association) : 에큐메니칼 운동성, 활동성 => Achievement, 고정성, 공신력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체로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2년 목적문 4항 나)에 [···천국을 건설···]로 언급되었으며, 1940년 목적문 3항에 [··· 사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건설···]로 세속의 사회가 명시되었는데, 1950년대 목적문에는 동일한 문구가 1항으로 변경되었다. 1954년, 1956년 목적문에는 따로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며, 1973년 목적문에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1997년 현재 목적문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로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시한 JPIC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신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한국YWCA의 목적문 전체의 근거는 초창기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성희 선생님은 말씀하시며, 에큐메니칼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성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 신학’이라고 정리한다.

그러나, 현실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에서 할 수 없어 또는 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하는 운동이며, 진리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운동이다. 한국YWCA 역사는 세상 속에서 활동한 역사이며, 세상과 더불어 성장한 역사이다. 한국YWCA 자체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물이며 산 증인이다.

현장은 언제나 문제와 해결을 요청한다. 한국YWCA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역사를 정리한 책에서는 절반 이상을 [성과와 의미]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운동이었던 초기의 방향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후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는 현장이 아니라 성과가 운동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

성과는 현장 안에 머무른다고 나오지 않는다. 현장의 요청을 들고 세상과 만나야 하며, 이는 현장에서 문제를 들고 와서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가 현장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연대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현장은 사라지고,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YWCA의 재구조화가 현장에 있는 YWCA를 복원하고, 새롭게 위치 잡는 시도가 아닐까 한다.

## Ω (오메가)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면서 YWCA에 대한 바람을 담아보았다.

Y	Young	Youth	Young
W	Women's	Womans'	W[il]men's
C	Christian	Civil	Christ
A	Association	Achievement	Accompany

### Ω-1. Young / 영(0, zero)

“애처러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 나는 같지라도 사랑하는 천곡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 (YWCA 역사중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최용신양의 유언, 1935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YOUNG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의미로 한국YWCA의 젊은(청년, 학생)회원, 선배들의 젊은 활동,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젊은 접근까지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착하길 바래본다.

100년의 역사 실천을 통해 쌓아온 명사로서의 YOUNG들과 한국YWCA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으로 삶과 시간을 바치신 Young한 선배님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세대와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프로그램과 실천을 young하게 하는 실무자들의 애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역사로 수용하기를 바래본다.

명사로서 YOUNG, 청년 학생 활동 생명은 [자기 결정성]이며, 이를 받쳐주는 Young한 선배들의 미덕은 [유지원 무간섭]이다. 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와 인식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구조적 독립성과 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해주는 과감한 시도를 바래본다.

한국YWCA가 선각자들의 거저 받은 기회로 성장해왔으니, 받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Young한 마음과 0(zero)으로 돌려주는 믿음과 실천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며, 실천을 통해 한국YWCA에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기 위해 뒤이어 오시는 명사로서의 YOUNG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Ω-2. W[il]men's

“귀국한 후 2년 동안 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한국의 여성들은... 모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YWCA... 앞으로는 공장 및 농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다.”(박에스터, 1949년 2월 16일, 동아일보 인터뷰)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한 여성이, 운동의 대상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여성 대중 속에서 주체로 성장한다는 것을 잊거나 간과하면, 생물학적 여성 지도력이 하는 모든 운동이 여성운동인 것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래본다.

한국YWCA의 출발점도 대중 속 여성이 지도력이었으며, 지도력이 다시 여성 대중으로 들어가 훈련받고 다시 지도력을 길러내는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공신력 있는 여성 지도력이 된 후엔 여성운동 그 자체가 되어버리게 된다. 지도력의 결정이 여성운동이라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지도력은 대중 속에서 나오며, 대중 속에서 훈련되고, 그 대중이 지도력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운동의 ABC를 잊지 않기를 바래본다.

한국YWCA의 활동은 반드시 여성대중들과 함께한다는 원칙이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 원칙이 되길 바래본다.

### 2-3. Christ

“[나보다 남을 위주로 산다는 것]이라는 어려운 정신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애써야 할 문제이며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자세인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Y에서 배웠고 Y에서 그 꽃피움을 보았다.”(“YWCA가 내 생활에 미친 영향”, 이숙훈, 1962년)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기독교인을 통해 기독교가 드러나며, 기독교인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성이 경험된다. 활동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순진무결한 기독교성은 존재할 수 없다.

한국YWCA 역사는 신앙으로 자각한 기독교인이 신앙의 실천으로 대중을 만나왔으며, 이를 통해서 대중 속에 자리매김하였다. 대중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성을 대중의 언어로, 보편의 언어로 풀어내어야만 했으며, 이는 기독교성보다 여성 대중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절박한 결정이었다. 표현되는 기독교성은 목적문과 공식적 자료에서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기독교성에 기초한 지도력을 만들 통로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이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도력으로 선택하게 했다.

기독교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성을 풀어도 예수가 등장해야 한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성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실천이 시민사회와 만났다면 이제는 활동의 뿌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한국YWCA의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100년은 조선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긴 역사이다. 이제 당당히 한국YWCA의 신학을 말할 수 있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늦었다.

목적문의 해설은 활동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신학은 뿌리를 알게 해준다. 한국YWCA가 기독교성에 기초한 단체이며, 이를 실현하는 곳이라는 것에 자신감을 스스로 낮출 이유는 1도 없다.

100주년이 한국YWCA의 신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발제자는 발제의 마지막, 오메가 장을 “육성/고백”과 “성서구절”을 임의적으로 붙여보았다. 한국YWCA의 영성교재와 신학 작업에 외부 남성/여성 목회자의 글이나 저명한 남성/여성 신학자의 권면이 아니라 여성 선배님들의 생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과 그 고백의 근거인 성서 말씀을 통해서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넘은 시도를 해 보았다.

Christian이란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다. 살아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한국YWCA가 되기를 바래본다.

#### Ω-4. Accompany

“Y가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에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위해 ... 바로 그것이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겠어요?” (근로자초청 간담회, 여성노동자의 촉구, 1971년)

“우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여라.”(집회서 7장 34절)

조선의 억압과 여성의 억압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어, 출발한 한국YWCA는 100년의 역사에서 굴곡도 있었지만, 낮은 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귀가 열린 몇몇이 모든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야 했으며, 뜻을 하나로 묶어야 했다.

한국YWCA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성과]에 기울게 되며,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던 운동에서 성과를 내는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성과를 내어야 하고, [할 수 있는 단체, 조직]으로서의 공신력을 획득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되며, 이는 2017년 한국YWCA 95주년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통해 구체적 반성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던 이 땅의 청년, 노동자, 농민들이 희생될 때, 온전히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한국YWCA 100년의 여정, 유성희, 대한기독교서회, 2021)

이후 2021년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논제/95개 논제]를 통해 총체적으로 한국YWCA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된다. 논제의 내용과 별개로 핵심 내용의 서술어가 눈에 들어온다.

‘있다, 한다, 않는다, 것이다, 전개한다, 없다, 아니다, 없어야 한다, 따른다’가 반복된다. 10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벤치마킹한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

95개 논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느낌은 ‘갑자기’였다.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한국YWCA가 움직였던 역사와 실천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 2021년, 종교개혁(1517)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황... 면죄부... YWCA의

존재 이유와 활동 방침에 대한 논제의 명제는 너무 익숙했으며 너무 낮설었다.

이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만 보면, [08. 한국YWCA는 한국YWCA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의 성서 구절을 인용한다. 이러면 어 뻤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히 수정해 보았다.

[08. 한국YWCA는 한국YWCA로 존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

새로운 도약은 지나온 시간을 반성으로만 만들거나, 그러지 말아야 했던 회개의 대상으로만 인식 하거나, 뒤집혀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사람, 한 단체, 한 조직이 전체의 변화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자각, 그래서 하나의 역할에 충실 함으로 전체를 바꾸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어떨까 생각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으로 기독교 단체를 비롯하여 교회는 전체를 책임지거나 바꾸려한다. 2000 년 동안 그 관점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전쟁과 분열과 아픔을 목도했음에도 여전히 [전체]와 싸우고 있다. 연합, 연대운동은 힘이 약해서,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달라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 YWCA에는 [여성]이라는 함께 할 확실한 동반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는 사람을 없게 하는 일을 위해 우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연대를 바라본다.

## Ω-5. 정리

YWCA는 명칭이자 목적이며 관문이다.

Y-C를 통해서 들어온 이들은 YwCa로 모였고, Y-A를 통해 들어온 이들은 YwcA로, Y-W를 통 해 들어온 이들은 YWca로 모였으며, W-A를 통해 들어온 이들이 yWcA 이름으로 모였다.

Y-W-C-A를 동일한 크기로 들어온 사람은 아마 최초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도 희박할 것이다. 이는 YWCA가 한국이라는 바다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 정이었다. 이 현실을 모두 안았으면 한다.

어떤 관문을 통해 들어올지 프로그램과 시기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다면, Y-C라는 기독교 학생운동이 YwCa안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든 YWCA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YWCA가 만나야 하는 사 람들은 C가 제시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본다.

“YWCA는 건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박에스터)  
또한, “YWCA는 우는 사람을 위한 건물이며, 우는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며,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p>1. YWCA 초기 활동의 주체였던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 변화          : YWCA 초기 학생들은 YWCA의 지도력을 배출하는 역할과 동시에 YWCA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과 주도성을 상실하는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운동의 대상으로서, 참여 대상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변화되었다.          대학 내 활동이 약화되면서 [학생]보다는 [청년]으로 흡수된다.</p>
<p>2.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의미          : 대학YWCA의 독자화 선언은 독립된 단위로서 역할에 구성원 간의 역할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 [여성]이 주체인 단체로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과 통합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학YWCA의 역할이 유지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선택이었다. 기독교학생운동에서도 [여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학생]운동의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었다.</p>
<p>3. 역사 변화에 따른 대학/청년YWCA 조직 및 활동의 변화과정과 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특성          : 대학생,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역할을 했던 1980년대 이후 IMF로 대표되는 세대의 등장과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전체 조직에서 보살펴야 하는 조직으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한 부분, 부서의 역할로 변화되면서 주도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독교여성운동에서 운동으로서의 YWCA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다른 여성운동단체에 이전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p>
<p>4. 청년이 주도하는 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 [청년]은 이제 [학생, 청년, 20-40]의 세대를 어우르는 말이 되었다.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직장생활 등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과제를 일찌감치 맡게 되어 주도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대학생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되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다른 과제가 등장하겠지만, 주체로서의 청년성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주도하는 운동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주도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청년이 YWCA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내용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여성운동의 [기독교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YWCA의 여성신학 작업이 필요하다. 기독교성이 교회와 세례에 한정되지 않고, 청년들이 YWCA운동의 기반을 잊지 않도록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신학적 작업이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YWCA 기독교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 질문의 출발에 [예수]를 두는 사람이다.          이미 1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가셨다. 이 길을 잘 정리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신학 작업이 필요하다.          “운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운동가는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싸우는 사람이다. 평화운동은 평화를 위해 달려가지만 평화운동가는 폭력, 반평화와 싸워야 한다. 운동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운동가는 평화의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 운동이 이룬 성과는 운동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운동가는 운동의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p>

---

**도입방주 총무**   도입방주 총무는 KSCF(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간사를 시작으로 2021년 제19대 총무로 선임되어 한국기독교학생운동의 선봉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공회대 신학전문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운 이론을 기독교학생운동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제 4

##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지역여성운동<sup>90)</sup>

곽지영

송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들어가는 말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855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YWCA는 1922년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되었다. 한국YWCA는 여성단체 중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100년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이어왔고, 공동체적 이념에 기초하여 시대의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실천적 정의운동'을 실천해왔다. 기도운동, 봉사운동과 교육·계몽운동을 결합하여, 여성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운동을 펼쳐왔다. 1947년 부산에서 무의탁 소녀들에게 농업, 원예, 축산, 가내수공업 기술을 가르치고, 전쟁 미망인들에게 양재, 편물 기술을 전수했던 것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여성직업훈련을 시작했다. 이후 1992년 노동부의 연구과제 "단기직종의 여성직업훈련 실시방안" 수행 이후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명한 여성직업훈련기관이 한국YWCA연합회가 정부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는 형태로 서울, 부산, 광주에 설립되었다. 2001년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하게 되었다. 경력단절 여성, 즉 기존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 전업주부, 중·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계층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성인여성이 처음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곳으로 기초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심화된 전문직업훈련으로 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일한 여성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어진 것이 YWCA 사업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회복, 국가균형 발전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슬로건으로 한 1991년 지방자치제가

90) 이 글은 『YWCA지역여성운동 연구(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시되면서, 지역은 구체적인 생활정치의 실현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전국 52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온 YWCA도 지역여성을 조직화 해야하는 주체로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지역사회 내의 신뢰성 있는 여성운동 조직이라는 YWCA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위탁사업을 기반으로 한 회원YWCA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면서 여성의 삶과 직결된 대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회원 저변이 확대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던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던 YWCA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제도화되어 가면서, 돌봄의 주체의 정체성보다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는 본부의 실무활동가의 수(2018년 현재, 391명, 17%)보다 부속시설의 실무활동가의 수(2018년 현재, 1,978명, 83%)가 훨씬 많아지는 YWCA의 인적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본부 실무활동가들이 수익사업과 서비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지면서 지역YWCA가 지향해야 할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동가들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본부 실무활동가들이 중점 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속시설을 정부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운동의 자율성 축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5년 이후 캠퍼스YWCA의 중단 이후 회원YWCA로 청년YWCA가 이전된 후, 활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청년YWCA 활동에서 운동이 약화됨에 따라 2002년부터 청년전국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YWCA 내의 청년 활동가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sup>91)</sup>

더욱이 법인의 책무성 관련 정부 정책의 강화에 따라 많은 부속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YWCA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에 YWCA는 2019년 YWCA 부속시설 新(신)운영정책을 마련하고, 2020년 2월 정기총회 이후 재구조화의 여정을 시작하여 100년의 한국 YWCA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구조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구조로 개혁을 이룬 YWCA는 다시 운동의 방향과 대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Young(청년)’, ‘Women(여성)’, ‘Christian(기독교성)’과 ‘Association(연대)’이다.

100살의 나이를 먹는 동안 잃어버렸던 청년활동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YWCA를 만들어 가는 것, 인구소멸 위기에서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여성들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인권이 존중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세워가는 것, 그리고 지역 안에서 진정한 연대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는 방법을 2022년 오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YWCA 운동을 통해 청년, 지역, 여성운동을 정리하면서, 미래의 YWCA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91)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재건배경, 김수진 간사, 2017년 10월 13일

## I. YWCA가 담당했던 지역여성운동

### 1. 전국대회 정책을 통해서 본 YWCA 지역여성운동

한국YWCA 운동의 지향은 YWCA 목적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6차례 변경된 과정<sup>92)</sup>에서 만들어진 YWCA 목적문에는 설립 초기인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당시에 목적문 4개 항 중 두 번째 항에 ‘지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운동의 현장이 되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지역’, 운동의 추상적 목적이자 조직의 구체적 형성 지침을 ‘지역’, ‘사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2~1940년**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와 타 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맡미암아 발달된 청년 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만국여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고적 행복을 발달케 함. 나) 청년여자로 야 소기독을 신앙케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이어 개정된 **1950~1953년**의 목적문에는 3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YWCA운동이 지역 운동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임을 밝히고 있는데, 1, 2항은 위와 같고, ‘3. 각 대학교, 각 도시 및 농촌 부인을 위하여 여자기독교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54~1955년에는 현재와 같은 한 개의 개조식 문장으로 목적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이 목적문에서는 주체인 ‘젊은 여성’, ‘기독교인’을 강조하고, ‘공통된 이상’, ‘친선’,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함’이라는 목적적 행동을 구체화하여 나타내면서 지역이나 여성들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YWCA운동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1954~1955년**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통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 데 있음.

**1956~1972년** 목적문은 현재의 목적문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1973~1996년에 잠시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으로 되어 있던 적은 있었으나, 1997년 개정 이래 지금까지 YWCA 목적문에서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공간이나 대상으로서의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기 생활’, ‘자기 삶’으로 보편적 실천의 장을 표현하면서, 실천의 결과이자 목적을 ‘평화’, ‘정의’로, 1997년 이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으로 나타내고 있다.

92) 대한YWCA연합회(2006). 한국YWCA 80년사. pp.538-539.

---

1997~현재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회 전국대회가 개최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부제가 바뀌기는 했지만 13년간 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이 슬로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사랑공동체운동 민들레운동이 본격화 되던 2006년에 지역사회 기반의 육아운동, 먹거리운동 등이 추진되었고, 2009년까지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중점이 채택되었다. 2011년부터는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이라는 이슈 영역과 목적이 조합된 프로그램 중점이 채택되면서 하위 과제들에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 제도 개선,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2014년부터 탈핵과 성평등 운동이 강조되면서 '지역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활동 및 연대' 과제와, '성인지 정책 정착'과 '여성폭력예방' 운동을 지역 기반으로 전개할 것을 채택하였다. 돌봄노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경우에도 두 개 지역을 선정, 시범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에서의 운동화를 시도하였다. 2016~2017 운동 정책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이라는 주제 하에, 탈핵운동과 성평등운동을 4대 운동 중에서 2개를 특별히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목표에도 두 영역에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지향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즉,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이루기(지역사회 성인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것이다. 2018~2019 운동정책은 2016~2017 운동 정책의 기초를 이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지역'과 '여성'의 관점을 접목한 운동 과제들을 지역 실정과 목표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2. 월간 『한국YWCA』 회원YWCA 활동소식을 통해서 본 지역여성운동

52개 회원YWCA의 2014~2018년까지 5년간 월간지 『한국YWCA』에 실린 ‘회원활동소식’ 가운데 지역여성운동 범주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활동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그 빈도수를 특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지역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활동, 프로그램 분석 결과

분류 기준	여성주의/성평등		사회서비스/돌봄 (가사, 산모, 간병, 아이돌봄)		YWCA 내부 여성리더십		이슈 (지역에서/지역의)		총계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횟수	백분율(%)	
2014	29	6.8	185	43.3	96	22.5	117	27.4	427
2015	25	8.0	174	55.4	96	30.6	19	6.1	314
2016	38	10.1	148	39.5	93	24.8	96	25.6	375
2017	52	13.1	161	40.7	100	25.3	83	21.0	396
<b>총계</b>	<b>144</b>	<b>9.5</b>	<b>668</b>	<b>44.2</b>	<b>385</b>	<b>25.5</b>	<b>315</b>	<b>20.8</b>	<b>1,512</b>

\*중복표시 있음

### 1) 사회서비스 활동/돌봄운동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YWCA 월간에 소개된 회원YWCA 활동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사회서비스’ 활동이었다. 2014년~2017년의 YWCA 활동 가운데 YWCA 지역여성운동에 해당하는 4개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은 2014년에 427회, 2015년 314회, 2016년에 375회, 2017년 396회 등 총 1,512회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활동/돌봄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668회로서, 전체활동 중 4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반을 넘는 비율로써 지역사회 YWCA 활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활동으로서 인식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 2) YWCA 내부 여성리더십(지도력) 활동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활동은 YWCA 내부 여성리더십(지도력) 활동으로서 전체 1512회 중 385회이고, 25.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임원과 이사 등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교육과 리더십 워크숍, 회원 특강이나 회원증모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여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지역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성장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YWCA가 해온 활동 기반 위에 YWCA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역할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이슈운동(지역에서/지역의)

세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활동은 지역 이슈 대응 활동(운동)으로서, 총 315회이며, 20.8%를 차지한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지역여성운동'의 주요내용인 지역이슈에 대응 활동이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 따라 이슈가 발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슈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2014년부터 YWCA 중점운동으로서 결정된 탈핵운동 등은 지역주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주요이슈로서 전 회원 YWCA가 결의한 운동이라 할 때, 전체 활동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 여성주의/성평등운동

YWCA 지역여성운동 범주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여성주의/성평등운동이다. 이는 전체 활동 중 144회로서 9.5%를 차지한다. 여성주의/성평등운동으로서 여성폭력반대운동이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을 위한 활동들도 엄밀히 지역사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주의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거버넌스 형태의 정부위탁시설 사업인 경우, 회원YWCA의 운동적 주도성 혹은 주체적 활동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범주 안의 활동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성주의/성평등 운동 관련 활동이 낮은 것은 지역여성운동의 핵심적 가치인 '여성주의/성평등'이 회원YWCA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언론을 통해서 본 YWCA 지역여성운동

YWCA가 전개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위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이용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신문기사의 선정은 지역별 종합일간지 중 언론재단 기사검색서비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27개 지역종합지<sup>93)</sup>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의 선정은 'YWCA'를 검색 키워드로 기자제목과 내용에 키워드가 포함되는 기사로 하여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지역여성단체의 지부 설립 등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YWCA가 지역에서 전개한 프로그램과 활동유형의 범주는 크게 여성주의/성평등운동, 사회서비스/돌봄운동, YWCA 내부 여성리더십 활동, 지역이슈의 4가지와 '안전' 관련 유형, 이들 범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인 '기타'를 추가하여 총 6가지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93) 27개 지역종합지(가나다순) :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표2〉 분석유목 : YWCA 활동과 프로그램

구분		활동에
여성주의/성평등(P1)	지역여성운동의 핵심가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쉼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 운동 등
사회서비스/돌봄(P2)	지역사회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 활동	가사도우미, 간병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운영
YWCA 내부 여성리더십(P3)	초기운동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지도력 개발 훈련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이슈(P4)	지역사회 고유의 이슈 지역에 변화를 주는 이슈	5.18 민주화 운동사, 세월호 사건 및 지역이슈에 대해 회원Y가 전개한 캠페인, 서명운동 등
안전(P5)	지역이슈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분야 이슈	오염된 지역환경을 살리는 운동, 자연보호 활동
기타(P6)	P1~P5 이외	교육모집, 개인 및 단체 동향, 인사, 안내 등

YWCA가 지역에서 전개한 6개 분야별 프로그램과 활동유형의 범주에 대한 기사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YWCA 활동과 프로그램별 기사수와 비중

구분		90~94	95~99	00~05	06~09	10~14	15~18.8	총합계(건%)
여성주의 성평등	지역종합지	5	23	44	80	67	38	257(18.7%)
	중앙지	10	7	10	9	25	24	85(14.6%)
	소계							342(17.5%)
사회서비스/ 돌봄	지역종합지	1	16	41	62	49	25	194(14.1%)
	중앙지	3	8	4	2	3	7	27(4.6%)
	소계							221(11.3%)
내부 여성리더십	지역종합지	-	-	4	6	6	10	26(1.9%)
	중앙지	-	-	-	1	1	-	2(0.3%)
	소계							28(1.4%)
지역 이슈	지역종합지	7	21	55	56	54	62	255(18.5%)
	중앙지	22	7	18	18	37	25	127(21.9%)
	소계							382(19.5%)
안전	지역종합지	5	5	13	18	31	34	106(7.7%)
	중앙지	50	41	49	26	64	44	274(47.2%)
	소계							380(19.4%)
기타	지역종합지	9	18	87	177	205	42	538(39.1%)
	중앙지	13	6	1	3	21	22	66(11.4%)
	소계							604(30.9%)

총합계 1,957(100%, 지역종합지 1,376 + 중앙지 581)

※ 합계란의 ( )는 분석 대상 총 기사 수에 대한 해당 기사 수의 비중

전체적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안전(380건, 19.4%)’과 ‘지역이슈(382건, 19.5%)’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여성주의/성평등(342건, 17.5%)’, ‘사회서비스/돌봄운동(221건,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YWCA 내부 여성리더십’은 전체의 약 1.4%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30.9%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기타 기사의 주요내용은 교육모집, 개인 및 단체 동향, 인사, 안내 등으로, YWCA가 지역사회 주요 동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외 여성주의/성평등 운동, 사회서비스/돌봄 운동, 지역이슈는 유사한 비중의 기사 분포를 보였으며, 2000년대 들어 신문기사 빈도수가 3개 범주에서 모두 급증하고 있다.

신문기사 수 추이를 볼 때 2000년을 기점으로 회원Y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활용유형도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존의 활동유형 외에 지역이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오염된 지역환경을 살리는 운동이나 핵발전 반대 및 먹거리 오염 등 안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기사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 II. YWCA와 지역청년 여성운동

### 1. 젊은 여성의 탈지방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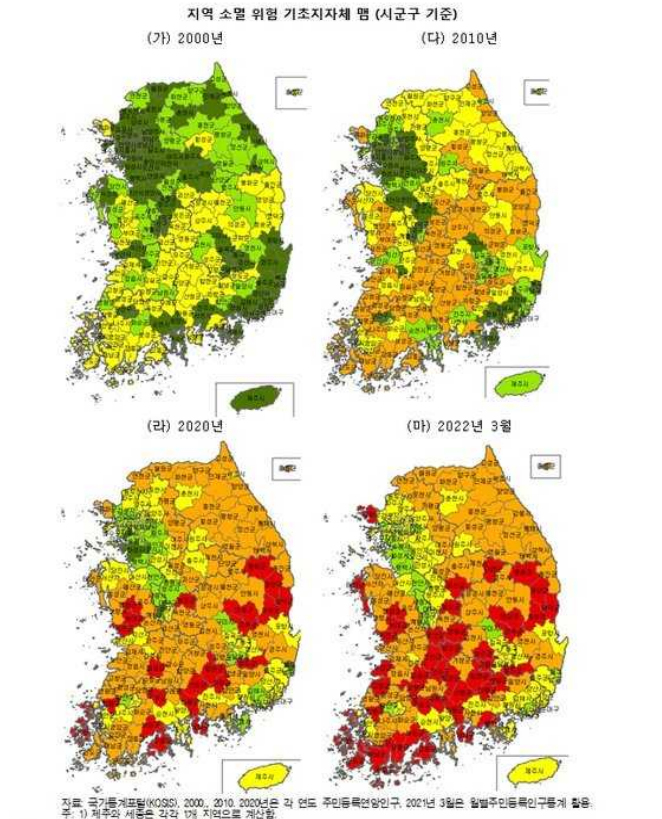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폴 윌리스가 처음 사용한 ‘인구지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표현하고 있는데,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인구소멸지수 산출 기준으로 출산율을 좌우하는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간의 비율을 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와 월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했다.<sup>94)</sup>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눠 구한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에도 미치지 못하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2020년과 비교해 올해 3월 새로 소멸위험 지역에 진입한 기초 지자체는 11곳(경남 통영시, 경기도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 강원 속초시, 전남 여수시, 경기 동두천시,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이었다. 경남 통영시, 전북 군산시처럼 제조업 쇠퇴가 뚜렷한 지역 이외에 수도권 외곽인 경기도 포천과 동두천시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편입됐다.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소멸위험지역이 확산하는 현상은 이번에 새로 확인된 현상이다. 또한 소멸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했다.

94)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38#home>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멸 고위험지역→저위험지역→핵심 지역으로 인구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산업·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인재 육성과 같은 고용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인구 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고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05, 2010, 2015, 2020년은 각 연도 주민등록연상인구, 2021, 3월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주: 1)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함.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 진입 기초지자체 수>

(단위 : 명, 지수값)

시도	시군구	전체 인구	20-39세 여성 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경상남도	동영시	124,872	10,405	26,878	0.387
경기도	포천시	148,527	13,923	31,638	0.440
충청북도	충주시	208,946	20,078	44,483	0.451
전라남도	나주시	116,497	12,494	26,880	0.465
충청남도	당진시	166,971	15,438	32,960	0.468
강원도	속초시	82,737	8,004	16,950	0.472
전라남도	여수시	276,145	27,446	56,982	0.482
경기도	동두천시	93,346	9,710	20,094	0.483
전라북도	익산시	277,151	28,685	58,706	0.489
충청남도	서산시	176,452	16,872	34,303	0.492
전라북도	군산시	264,656	26,351	53,395	0.494

2. 우리 시대의 청년 세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다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 표적 대상에서 빗겨나 있던 청년이 이른바 ‘신복지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2년 1사분기 청년실업률(6.7%<sup>95</sup>)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주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 불안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취업난과 실업의 증가로부터 시작된 청년문제는 청년 부채의 증가,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청년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청년의 휴학·졸업유예·학업 중단, 결혼과 출산의 지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악화, 낮은 행복감,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 사회적 참여 감소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김기현 외, 2017). 더욱이 건강한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독립 기회의 배제 및 독립 후 경험하고 있는 주거빈곤<sup>96</sup> 상황 등은 취업난으로 인한 장기실업과 저소득 문제와 결합하여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행복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한승현 외, 2017)<sup>97</sup>,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의 개선과

9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531E&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531E&conn_path=I2)  
 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2016.12)」에 따르면, 1인 청년(19-34세) 가구 중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이 20%를 넘는 경우가 47%였고, 이는 청년 부부 가구의 39.8% 및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의 34.2%보다 높은 수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더욱이 주거빈곤 문제에 있어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주거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64.7%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너무 적거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 저축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이었다(헤럴드경제, 2017.1.17).  
 97) 한승현 외(2017)가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원의 결핍 및 불확실성과 통제권한의 부재 모두 청년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 통제권한의 부재가 청년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의 결핍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기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시장경제에 독립적 주체로 진입하는 최초의 단계라는 점이다. 연령이 낮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저숙련과 짧은 경력으로 인한 취약함으로 이어지며,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세입자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진다. 소득도 낮고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이제 막 사회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니, 사회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조건에서 경제위기의 충격이 그들에게로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청년세대는 균질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세대는 관계와 문화, 경험과 감수성을 공유하며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청년세대가 사회집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토대(관계성과 사회성)는 세대 내에서 다양한 격차와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개인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계 형성과 공동의 움직임을 통해 대응하는 문제해결의 사회적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해결 주체로서 청년의 등장이 비록 지금의 ‘현실태(Actual)’가 아니라 미래의 ‘잠재태(Virtual)’로만 확인될지라도, 현재에서 미래를 이으며 살아갈 청년들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는다면, 희망의 언어는 불가능할 것이다. 98)

지역의 소멸위기를 건강하게 대응하고, 지방분권의 의리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특히 청년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정책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청년여성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젠더지표는 누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결정된다. 남성 중심의 결정에 들러리같이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청년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공청회에 참석하여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것인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과 ‘청년’이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3. YWCA의 인적자원과 청년운동

#### 1) YWCA 회원현황

YWCA는 회원운동체로서, 회원은 YWCA의 정책을 실제로 실천해나가는 힘이며, 조직의 운동방향과 함께 중요한 활동지표가 된다. 회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 52개 회원YWCA에서는 회원증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0년대 전체 회원 수가 5만 여 명에서 2017년에는 9만 여 명까지 증대되었다. 성인회원 대비 청(소)년 회원수는, 1994년 65,135명 대비 12,309명(19%),

98) 청년운동이란 무엇인가? 세대담론에 대한 재고再考, 월감참여사회, 2015년 10월

2011년 96,845명 대비 8,085(8.3%), 2017년 94,731명 대비 9,192명(9.7%)로 10%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 변화와 더불어 경제 위기, 개인 활동 선호 등으로 비영리조직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신앙인의 감소 등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으나 청(소)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 한국YWCA 회원 수 현황(단위 : 명, %)

회원구분	1994년	2011년	2017년
일반회원	50,291(77%)	67274(70%)	57,196(60%)
평생회원		6077(6%)	7,757(8%)
특별회원		3260(3%)	3,912(4%)
단체회원	-	506(1%)	769(1%)
회우	2,535(4%)	1887(2%)	2,924(3%)
기타	-	9756(10%)	12,981(14%)
어린이	6,579(10%)	3214(3%)	3,321(4%)
Y-틴	4,450(7%)	3863(4%)	4,103(5%)
대학생	511(1%)	1008(1%)	1,768(1%)
청년	769(1%)	-	-
총계	65,135	96,845	94,731

2) 자원활동가 현황

YWCA 활동가는, YWCA의 목적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달성되도록 하는 일정한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이사, 임원, 각급의 위원, 전문직 간사, 특별한 기술을 가진 프로그램 자원활동가, 특정한 그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 등이다. 특히, 이사와 위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각 회의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YWCA 내외부에서 만나는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끌어 잠재적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조직화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sup>99)</sup>.

1994년에는 무급강사를 포함하여 자원활동가 수가 5천여 명에서 2017년 현재에는 3700명으로 감소하였다. 강사를 자원활동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인 자원활동가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지도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9) 2018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사)한국YWCA연합회, 2018년

○ 자원활동가 수 현황<sup>100)</sup>. (단위 : 명, %)

구분	1994년	2011년	2017년
이사	1,215(22%)	1,028(26%)	917(24%)
명예이사	-	127(3%)	142(4%)
위원	2,107(38%)	1,923(49%)	1,803(48%)
어린이지도교사	211(4%)	126(3%)	45(1%)
Y-틴 지도교사		123(3%)	108(3%)
Y-틴 지도사		157(4%)	102(3%)
대학Y지도교수		3(0%)	13(0%)
클럽지도자		100(3%)	34(1%)
무급 강사	1,740(32%)	-	-
기타	248(4%)	310(8%)	604(16%)
총계	5,521	3,897	3,768

3) 실무활동가 수 현황 (단위 : 명, %)

YWCA 위탁시설이 늘어나면서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실무활동가 총 2,369명에서 본부 실무활동가는 391명,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는 1,978명으로 2:8 정도로 부속시설 실무활동가가 월등히 많다. 본부실무활동가는 프로그램과 돌봄 업무에, 부속시설 실무활동가는 계약직과 전문직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 실무활동가 수 (단위 : 명, %)

구분	1994년	2011년	2017년
본부	709명 중 복지사 46명	431(20%)	391(17%)
부속시설		1673(80%)	1,978(83%)
총계	709	2,104	2,369

- 2017년 본부 실무활동가 수 (단위 : 명)

	사무	회계	회원	돌봄	청소년	프로그램	기타	소계
인원(명)	53	44	35	80	39	89	71	391
비율(%)	14	11	9	20	10	23	18	100

100) 2017년도 한국YWCA 연간보고서, (사)한국YWCA연합회, 2018년

- 2017년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수 (단위 : 명)

	원관장	전문직	일반직	계약직	관리직	소계
합계	153	565	542	625	93	1,978
비율(%)	8	29	27	32	5	100

#### 4) 회원YWCA 부속시설 현황

2017년 연간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수는 194곳이다. 한 Y당 3.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부터 다문화까지 영역과 범위도 다양하다.

부속시설은 다양한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Y의 목적과 사명을 지역사회에 바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속시설이 Y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관리체계를 지켜나가고, Y부속시설간 네트워크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진 정보를 공유해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87년 고용평등법 통과 이후 시행된 시범직장탁아소 10개 중 6개를 YWCA가 설립하여 직장탁아의 모델을 창출하였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을 개발하여 여성직업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YWCA 활동이 '사적 영역, 생활 영역'의 이슈들을 '정치화'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sup>101)</sup> 부속시설은 계속 Y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 ○ 본부 시설 및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
<b>어린이집/유치원/아기스포츠탄</b>	<b>21(11%)</b>
지역아동센터	13(7%)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실/청소년수련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기타	18(9%)
<b>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회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b>	<b>34(17%)</b>
가정폭력상담소	12(6%)
성폭력/성매매피해상담소	13(7%)
여성/아동쉼터	10(5%)
<b>돌봄</b>	<b>7(4%)</b>
건강가정지원센터	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3%)
복지관/자활후견기관/자원봉사센터	15(8%)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교육원/인재은행	14(7%)
기타	25(13%)
합계	194

101) 2017년 제5호 여성, 최만자

## 4. 청년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YWCA의 노력들

### 1) YWCA 부속시설 新(신)운영정책의 도입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지역을 살리는 여성’이 되기 위해, 부속시설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YWCA정체성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사회복지운동의 전문화와 지역사회로의 확장은 YWCA 운동의 중요한 정책이고 전략이었다. 그러나 부속시설이 위탁 시설 운영 형태로 전환되어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주도의 관리 형태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위치 지어지고 위탁시설의 성과가 운동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 중심의 관리 체제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본부의 핵심사업과 지도력이 부속시설로 이관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부속시설의 운영평가를 한 결과 지역운동의 중심이 회원 YWCA 본부가 아닌 시설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부의 운동성 약화라는 결과와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큰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본질을 찾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YWCA 정체성을 실현하는 거점(부속시설)으로서의 부속시설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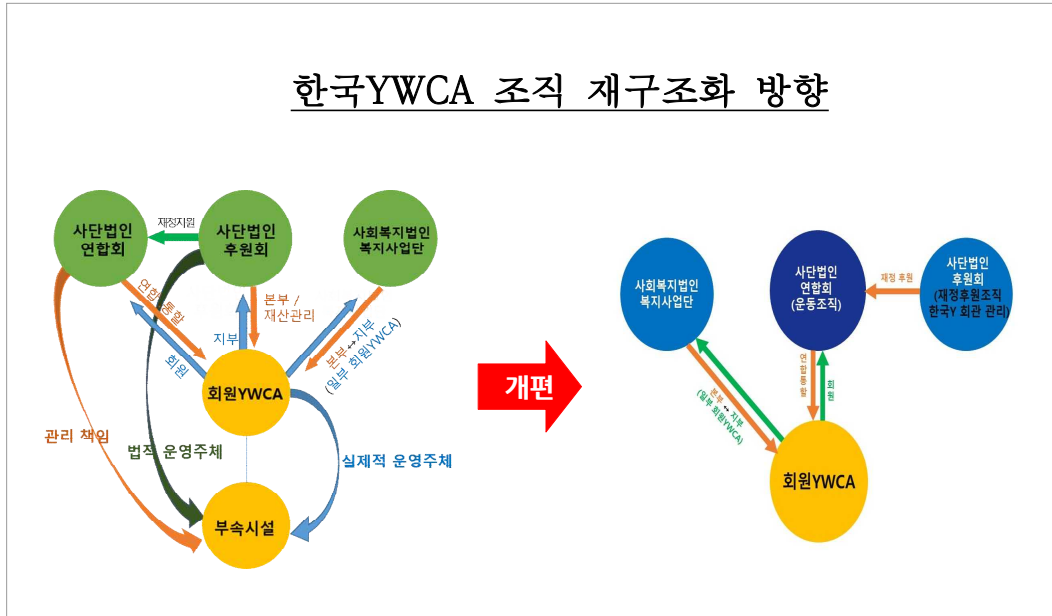
YWCA 부속시설 新(신)운영정책은 다음과 같다.

“YWCA정체성에 근거한 <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본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부속시설은 각 시설의 설치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 또는 회원YWCA(본부)는 각 시설이 시설의 고유목적에 근거한 전문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한다.”

### 2)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한국YWCA 창립 100년 이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한국YWCA 세 법인과 회원YWCA가 Y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기독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함으로써, 지방분권화 시대에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방향



### ① 의사결정구조의 책무성 강화

- 의사결정구조의 일원화(법인이사회와 실행위원회 이중구조 해소)
- 법인 이사 인원 조정(등기이사)
- 실정법상 자격을 가진 구성원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확립

### ② 청년대표성, 회원대표성 확대

- 총회, 이사회 청년할당제 도입
- 35세 이하 청년 부회장 제도 도입
- 총회 연합회:회원YWCA 대표 비율 조정

### ③ 의결기구와 실행기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법인이사회의 역할 명확화
- 의결사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보완
- 회의 운영원칙과 평가체계 보완

## 3) 회원YWCA 조직 재구조화

회원YWCA도 지역운동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을 정비하고 있다. YWCA가 지향하는 가치중심의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션을 위해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YWCA는 회원YWCA의 미션을 재점검하고, 그 미션을 명확히 한 후, 그 미션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목적사업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뚜렷히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운동체로서 회원YWCA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조직의 사활과도 맞닿아 있기에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목적사업에 따라 지역법인을 신청할 주무관청도 설정한 후 회원YWCA는 운동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국내 공업도시에서조차 젊은 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핵심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지역 인구 감소의 핵심 고리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 앞에 회원YWCA는 놓여있다<sup>102)</sup>. 젊은 여성이 떠나지 않는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과업은 결국 회원YWCA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회원YWCA는 재구조화를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젊은 여성임을 기억하면서 지역운동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지역청년운동의 새로운 실험으로서 로컬프렌들리 사례<sup>103)</sup>

#### 1. 고민의 시작 : 지역을 살리는 청년? 지역을 떠나는 청년?

##### YWCA 활동이 삶이 될 순 없을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전국 시·군·구 228곳에서 89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 말한다. 지역엔 사람이 줄고 서울은 사람이 넘치는 양극화 현상 ‘서울공화국’은 뉴스가 아닌 현실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도 같은 주제로 전국각지의 YWCA 청년들과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여러 활동들을 펼쳤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기에 청년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 직업·생활·주거 등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발 앞에 쌓여있었다.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활동했던 청년들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이 되기 전에 결국 일자리를 찾아 그 지역을 떠났다.

YWCA 활동이 삶이 될 순 없을까? ‘YWCA 활동이 삶의 문제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될 순 없는지’, ‘삶의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할 순 없는지’ 더욱 쉽게 말해보자면, ‘YWCA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102) 머니투데이, 포스코도 있는데 인구 50만 무너진 ‘포항’..그녀들이 떠난다, 이창면, 2022. 07. 08.

중앙일보, 전국 시군구 절반은 소멸 직면...수도권 외곽도 위험, 김기찬, 2022.04.29

103) 한국YWCA 연합회 소식지 5-6월, 7-8월에 연재된 로컬프렌들리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

## 2. 출발 : 지속가능한 YWCA 청년 모델 개발을 위한 창업에 도전함

2019년, 대학·청년 담당간사 2명(연합회 김수진, 청주Y 김광식)과 YWCA 청년회원 2명(거제Y 차민규, 대구Y 손지수)이 'Y-LAB(YWCA 청년 연구소)'이란 팀을 구성하였고 '로컬라이즈 군산' 1) 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되었다.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속가능한 YWCA 청년모델 개발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모범이 되고자 우리는 군산으로 향했다.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지역 청년의 지속가능함에 대해 고민하며 동료들과 함께 직접 창업에 도전했다. YWCA 가치가 내재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역재생'과 '커뮤니티(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YWCA 청년들과 활동하면서 생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비즈니스로 풀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YWCA 청년운동과 청년조직의 실험적 모델을 지역 안에서 실제로 만들었고 주식회사 로컬 프렌들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 3. 지향 : 재밌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을 꿈꾸는 로컬프렌들리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로컬프렌들리는 '로컬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한다. 지역내 공동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군산 원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 후즈'라는 숙박형 공간운영과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호텔은 기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에 '로컬'과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더한 개념이다. 로컬 식당과 펍, 카페, 샵 등 우리가 큐레이팅한 군산을 즐길 수 있도록 '쿠폰'과 '마을지도'를 제작했다. 숙소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단순소비와 표면적인 관광지로만 군산을 만나지 않고 지역과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link)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4. 도전 환경에 대한 이해 : 군산이 가진 지역적 한계

; 소멸 위기의 군산, 제조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여행으로 왔지만 여행으로도 오지 않을 군산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뒤 소멸될 위험이 있다. 지방소멸 위험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경험할 미래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지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2017.7.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6.1.) 등으로 인해 군산 역시 지역경제 위기에 처했고, 지방소멸가능 도시로 꼽혔다. 최악의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지육성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수립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 주로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군산을 관광도시로 개발하였고, 2018년 약 515만명의 관광객 수를 돌파했다.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군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군산이 지닌 '일상의 스토리'와 '본래의 가치'는 잊혀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군산 여행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따라붙는 연관검색어가 '당일치기 여행지'다. 군산 여행 콘텐츠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그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숙박 형태로 체류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연계형 여행 콘텐츠는 부족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위 말해 '핫'하다는 군산의 명소를 살펴보면 카페, 중식당, 맛집 등과 같이 짧은 시간에 한끼 식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악순환은 군산이 당일치기 여행객이 원하는 장소로 맞춰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일치기 일정에 따라 낮에만, 주말만 운영되는 곳들이 늘어났다. 사람으로 가득했던 주말의 원도심은 오후 3시 이후 노란색 빵 봉투와 함께 썰물 빠지듯 사라진다. 관광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는 재방문객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군산을 또 방문할 것이냐는 물음에 많은 사람이 '한번 올 곳,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 5. 지역적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 :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호텔

체류는 곧 소비다. 국내 관광여행에서 재방문 의사에 '숙박시설'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군산 원도심의 숙소들 대부분이 당일치기 혹은 잠만 자는 여행객을 위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정주인구가 줄고 낮과 주말에만 운영되는 '관광지화된 마을'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여러 가지 문화가 깃들여 '여행처럼 사는 마을'이 될 방법을 연구했다.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숙박형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호텔'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호텔은 기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에 '로컬'과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더한 개념이다. 투숙객이 자연스럽게 로컬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쿠폰'과 '마을지도'를 제작하여 로컬식당, 펍, 카페, 샵 등을 연결한다. 여행자들이 단순소비와 표면적인 관광지로만 군산을 만나지 않고 지역과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link)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순소비보다 여행지에서의 '일상의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여행자를 초대하고, 그렇게 지역에 속해보았던 경험이 연결고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동기를 부여한다. 도시의 관광화가 아닌 리빙화를 통해 생활터전과 그곳의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여행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처럼 사는 마을'이 되도록 한다.

### 6. 계속되어지는 도전 : 여행에서 지역재생으로/YWCA의 커뮤니티의 능력

군산의 지역적 특징과 배경을 바탕으로 로컬프렌들리는 지역재생을 위한 비즈니스를 고민했다. 우리는 '지역재생'과 '커뮤니티(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형 비즈니스를 기획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청년을 필두로 한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의 을지로 등을 비롯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많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항상 싸늘하게 식어버린 청년마켓이 되어 버린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에서 투기꾼과 건물주만 배부르

게 하는 불평등만 남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수리, 도로정비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금 중심의 사업추진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여살게 할 것인가’의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즉, 건물 경제 차원의 재생에서 나아가 문화 재생까지 나아가야 한다. 커뮤니티호텔을 통해 군산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나아가 여행처럼 사는 지역의 일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루를 여행해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군산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실제로 커뮤니티의 단절이 가지고 오는 아픔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많다.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 외로움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로컬프렌들리의 커뮤니티 사업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31년 YWCA 교사로 샘골에 파견되어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최용신 선생님처럼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재밌게 모여 살고, 지역민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매력에 반한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고,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역민과의 만남에서도, 외지인과의 만남에서도 YWCA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우리만의 가치와 커뮤니티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 달란트를 품고 우리는 오늘도 군산에 산다. 우리를 통해 군산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군산이 재밌어서, 군산의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군산 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행지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으로 언제든 오세요.

#### IV. 어떻게 기독/지역/청년/여성/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Y는 어떻게 ‘청년’, ‘지역’과 ‘기독성’을 중심으로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고민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YWCA는 어떻게 지역 중심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와 “YWCA는 어떻게 청년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지역과 여성을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수행해온 YWCA였지만 현재 급속히 변화하는 이슈와 지역의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여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또한 Young을 표방하지만, 어 느덧 청년정신만 남고 사라진 진정한 청년활동가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하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고 세워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YWCA는 어떻게 여성 중심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지역에서 여성운동의 다양성과 차이에 따른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 찾기, 회원들 간의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효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조직의 확대와 분화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장기적인 전망수립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지구화, 지방화 시대의 이슈를 중앙의 하부단위가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단위로서 어떻게 지역화할 것인가? 회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삶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주체로서 참

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가? 또한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소통이 원활한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조직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이다. 다른 시민운동 단체에서 항상 연대하기를 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Y이지만, 다양한 지역이슈를 계발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철저히 직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Y가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해왔던 다양한 수고와 노력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제도화로 결실을 맺었고, 지역에서 시작된 EM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환경을 지키는 YWCA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전지구적인 이슈인 탈핵을 연합회가 중점운동으로 선정하여 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YWCA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화되는 등의 결실을 이룬 이후 시의적절한 사회적 운동 의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힘을 쓸 여력이 없어 손을 못 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기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급급하여 지역여성운동단체로서의 운동성을 잃어버린다면 더이상 YWCA의 운동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YWCA는 어떻게 여성 주체로서의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성 중심의 의제를 개발하고 여성이 주체로 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왜 다시 그 문제를 깊이 논의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투운동을 비롯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몸부림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회원 구조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 구조는 여성주의 등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운동을 펼쳐가는 YWCA 내부적으로 ‘성평등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확산되지 못하여 성평등 사회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여성과 함께 제대로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기독교가 교리를 가지고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와 여성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YWCA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청년리더십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획기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YWCA는 본부의 재구조화와 부속시설의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조직적 틀로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능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새로운 구조가 하나님이 YWCA에게 요구하는 소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청년리더십이 실제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요청하는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구조적으로 청년 이사를 선임하였다면, 그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기도가 필요하다. 청년리더십을 재건을 통해 미래의 YWCA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그날 기대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YWCA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를 질문하고, 소통하고, 합의해 가면서 YWCA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주년을 맞이한 YWCA는 오래된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제도화된 조직과 다수의 회원 등의 외부적 위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의식이 둔해진다면, 100주년 이후 YWCA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없다. 이제는 어떻게 YWCA를 재조직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초기 YWCA 선배들이 가졌던 선구적인 역할들과 운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YWCA는 늘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갔다. 급속히 변화되는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YWCA를 간절히 소망한다.

---

**곽지영 교수**

곽지영 교수는 송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장애인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박사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의 여성장애인 단체, 장애인 현장과 협업을 하였고, YWCA에서는 2008년부터 복지사업위원회·온학의집 운영위원회·부속시설운영위원회 등 복지 관련 위원회 위원 활동을 거쳐 10년간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 중 장애, 여성, 청소년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이다.

## 발제 5

##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

이 다 인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배운 만큼 달라야 하고, 믿는 만큼 달라야 한다.’ 이는 1922년,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한국YWCA를 이 땅 위에 성공적으로 세우신 김필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김필레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충실히 행동으로 이행하셔서 진정한 선각자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석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많이 배우신 만큼 순간순간의 시련을 헤쳐 나갈 계획을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셨으며, 신앙이 깊으셨던 만큼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어지시던 순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김필레 선생님께서 당시 선생님과 뜻을 함께하던 많은 용감한 여성들과 함께 시대적·개인적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여성운동의 주춧돌을 마련해주신 덕에 현재 YWCA가 청년운동(Young), 여성운동(Women), 기독교 운동(Christian), 회원운동(Association)으로 대표되는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YWCA는 1922년부터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2022년까지도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여전한 한 줄기 빛이며,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25년 여름,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YWCA는 의료반을 구성하여 영등포·마포·신천 등지로 순회하며 일주일 동안 하루 180명 넘는 이재민을 치료해주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집이 없어 방황하는 시골 소녀를 데려와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직업을 찾아주고, YWCA 내의 도서관을 사용하게 하여 조선의 여성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YWCA는 과거 우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었으며 전쟁미망인·고아 구호사업, 도시 여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녀의 집’ 운영, 여성노동자 인권 향상, 가족법 개정, 인권 운동, 아나바다 운동, 환경운동, 평화통일 운동부터 올해의 운동 방향으로 청년·성평등·평화의 관점을 반영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제시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YWCA의 비전과 그들이 앞장서서

---

여성과 인류를 돕는 모습은 저희 청소년에게 큰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타인과 어울려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승고함을 알게 하여 가슴 속에 이 정신을 품어 싹틔우게 합니다.

청소년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YWCA의 비전은 평생을 기독교 여성 교육자로 사시면서 봉사과 헌신의 자세를 보이신 김필레 선생님의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정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와 같은 기독교 단체들과 선생님께서 어렵게 복교 허가를 받아내시고 초대 교장을 맡으셨던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김필레 선생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김필레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여성 교육자들의 정신을 가슴 속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각자 '굳건한 믿음, 고결한 인격, 희생적 봉사'의 교훈을 재학 도중과 미래 사회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되어왔고,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22세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후대 세기의 하나님 나라 청소년들이 김필레 선생님과 YWCA의 사랑, 희생, 봉사 정신을 본받아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는 주력자 한 명 한 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배운 만큼 다르고 믿는 만큼 다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성 지도자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곧은 신념을 가진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 도래하길 고대합니다.

YWCA의 창립 10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다인 학생**

이다인 학생은 정신여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생회장을 맡고 있다. 임원 훈련에서 김필레 선생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선생님들과 다른 임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앞으로 남은 고3 수험생의 시간도 김필레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학교와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발제 6

## YWCA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라며

신보미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청주YWCA는 청주지역이라는 여성들의 삶의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환경, 먹거리 등 성평등 이슈 혹은 폄하된 여성이슈를 가지고 YWCA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개인의 이해가 지역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험을 하고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가 법, 제도,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1965년 창립된 이후 청주YWCA의 주체는 여성이었으며 지역에서 만나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왔다. 물론 청주YWCA가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과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그 활동의 범위와 여성주체성의 측면에서 분명 지역여성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65년 창립한 청주YWCA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열악한 여성들의 현실을 인지한 지역여성들로부터 시작됐다. 창립시기에는 지도자그룹이 형성되는 시기로 여성들의 계몽활동, 생활조건 개선, 복지활동이 주요 활동내용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운동의 대중화, 조직화시기로 지역사회의 많은 여성들에게 폭넓은 영향력과 성과를 가져왔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여성운동의 제도화과정에서 청주YWCA는 위탁시설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은 청주YWCA에만 국한된 경로는 아니고 전국의 YWCA, 나아가 대다수의 여성운동단체가 겪은 과정일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좁은 지역의 특성,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구성원, 보수적인 기독교 문화 등의 영향으로 YWCA는 탈정치화 되면서 오히려 전국의제나 교육활동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지역이라는 공간성에 기반하여 여성주체를 형성한 여성운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여성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 경제, 문화, 법·제도의 변화, 지역사회에서 성별역할관계의 변화는 주도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청주YWCA는 지역의 여성리더들을 키우고, 대중조직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중추적 역할, 여성 이슈의 갈등 국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 지역에서 청주YWCA는 어떻게 유효했는가

### 1) 여성지도력의 형성과정

지역여성운동에 있어 여성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창립단계에서 지역 사회 여성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가치, 지향, 그리고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보다 대중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청주YWCA 50년사를 집필한 정동신(청주YWCA 이사, 증경회장)은 저자 서문에서 “그들 대부분은 시대를 앞서가는 영성과 통찰력과 균형을 갖춘 지도자들이었고 공유와 공감이라는 과제를 실천해온 지도자들로 YWCA정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지역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음은 물론 세계YWCA와 한국YWCA, 그리고 청주지역사회의 선교와 변화의 주체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며 청주YWCA 지도자들의 깊은 영성과 헌신이 곧 청주YWCA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다.

#### <목 차>

1.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1965~1987) 뿌려진 씨앗 / 다시 뿌려진 씨앗 / YWCA 가치를 세우고
2. 봉사의 띠를 매고  
청소년운동 / 준회원예 가입 / 사회봉사와 계몽운동
3. 소명으로 시련을 딛고  
고난을 넘어 / 사명을 향한 도전/
4. 기도로 기적을 이루고  
육함을 깨뜨린 여인 / 회관의 터를 찾아/ 실현되는 사명

청주YWCA 50년사의 목차를 살펴보면, 창립 후 20여년은 기독교적 사명을 인식한 여성들이 YWCA를 통해 선교의 현장을 사회로 확장하면서 YWCA지도력, 나아가 지역사회 여성지도력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지역 성불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소외된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들이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체적인 여성지도자들이 결합했다. 온건하고 개혁적인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에 YWCA를 신뢰하게 하는 힘이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여론을 동원해 다수의 여성들을 YWCA활동으로 이끌어냈다. 청주YWCA, 창립초기의 리더십은 5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헌신성과 개혁성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온건하고 개혁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청주Y의 창립으로 조직된 여성지도력은 지역의 젠더불균형적인 리더십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서 YWCA의 창립은 능력있는 여성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간이었고, 여성들의 요구를 공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

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 2) 청년클럽의 대중화

### ① 지역여성운동의 대중화 단계

YWCA운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계기는 회관 건립과 상근실무자의 확보이다. 회관 건립은 공적공간의 확보라는 결과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청주YWCA 50년사를 보면 회관건립의 과정, 그 의미를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회관건립 당시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리더십이 혹은 지역사회의 여성들과 어떻게 연대했는가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1988년 청주YWCA는 회관이라는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여성운동의 대중화 단계로 들어섰다. 지역여성운동에서 여성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곳, 여성들의 삶과 욕구를 함께 발견하고 공부하고 '여성'으로서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 선각자들로 시작된 여성운동이 대중화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결망이 회관건축이라는 시민적 자산을 획득함으로써 시작된다. 회관건립 후 프로그램과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 732명의 회원이 1988년 1년 사이에 1,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지도자의 발굴, 지도력 훈련이 요구되었다. 1988년에서 1994년까지 위원회 위원수가 22명에서 100명으로, 직원수가 10명에서 35명으로, 회의 및 지도력훈련은 185회에서 328회로 늘어났다. 이 시기에 청주지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정신과 그 손길들이 YWCA를 통해 하나의 힘으로 모아져 대중적 자원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의 결과가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여성들의 바램이 YWCA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졌다. 유치원, 어린이 교육활동, 청소년, 대학Y, 성인클럽, 여성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회원 혹은 시민들이 YWCA 회관에 모여들었으며 지역사회가 청주YWCA에 바라는 기대역할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체전 선수촌봉사활동이다. 1990년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경험과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려움에 직면한 충청북도는 청주YWCA에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부탁하였으며 청주YWCA는 각 교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신도회 대표를 세워나가고 교육,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하였다. 전국체전 선수촌 봉사활동은 YWCA 자원봉사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른삶실천활동, 소비자보호운동, 환경학교, 아나바다장터, 여성직업개발 등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 지역사회 요구에 따른 섬김과 지역사회문제해결이 회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동아리활동으로 이어졌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는 여성주체가 확보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로 YWCA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중적 여성운동체 사회운동단체로 인식되는 단계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YWCA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여성운동체로서의 YWCA 정체성을 규정하고 합의하고 운동 전략을 세워나가기까지 여력이 없었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 육아 및 자녀교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성들의 동기에 따라 기획되어지고, 참여한 여성들은 개인의 자신감과 만족감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었지만 무급 자원활동에 기반한 여성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기가 어려웠다. 여성운동의 지향점을 명확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활동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중적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 ② 제도화 과정에서 지역여성운동의 한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청주지역사회는 경제정의, 자치와 참여, 환경 등 부문별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시작되고, 여성주의에 기반한 여성단체들도 조직되면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지역내 연대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이 시기는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과 공직의 부정부패,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현안, 호주제 폐지 등 연대를 통해 저항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향한 '시민 참여'의 공간을 확대시켜나가는 시기였다. 지역사회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청주YWCA는 YWCA 목적에 부합한 대중사업(환경클럽, TV모니터, 유해환경감시, 아나바다운동 외)을 수행하면서 이미 확보된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정부의 위탁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1992년 전국체전 선수촌 봉사활동이 끝난 후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 위탁받은 어린이집을 필두로 199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종합상담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모자자립시설 상록수 등 청주YWCA 본부에서 수행했던 사업들은 부속시설화되며 YWCA 조직은 확대되고 규모화되었다. 청주지역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시민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질 즈음 제도화의 경로를 밟게 되면서 시민성획득이라는 운동단체의 성격보다는 사회서비스 조직으로서의 평판을 갖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여성주의 담론이 형성될 즈음 YWCA는 본부와 위탁시설간 여성주의 관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통합해낼 것인지에 따른 논점을 공유하지 못하며 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위탁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는 전문화되는 반면, YWCA 본부는 단기성 사업을 해내는 방식으로 조직의 힘을 소모시키고 지역에서 어떻게 의제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 주체는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전문성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 ③ 회원중심성 운동의 노력, 생활협동운동과 민들레운동

1995년 30주년을 맞이한 청주YWCA는 지역여성조직체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회원조직의 역동성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위기감과 공동체가 해체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할 선명한 운동의 방법과 비전으로 생활협동운동을 선정했다. 생활협동운동은 기초공동체로 '등대' 조직을 결성하고 마을단위에서 생활세계를 공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유기농 지역먹거리를 매개로하는 등대운동은 청주YWCA에 회원조직화, 풀뿌리조직화 담론을 제공하고 제도화운동의 경로를 밟고 있는 YWCA 운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도와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가치와 비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2004년 한국YWCA연합회의 중점운동으로 전국각지에서 실행한 생명사랑공동체운동, 민들레운동이 이어지지만, 이미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주YWCA의 조직체계는 풀뿌리여성운동체로서의 체질적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동의 성격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은 청주YWCA 생협운동이나 한국YWCA연합회 차원에서 52개 회원YWCA가 함께 전개한 민들레운동이 운동 주체성과 의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즉 운동이 중단된 이후 YWCA 운동의 주체와 전략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운동조직의 재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동이 중단된 것이다. 다만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30주년 기념운동인 생활협동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황주석(전)부천 YMCA 사무총장이 생활협동운동의 사회변혁성, 조직운동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실무활동가들은 물론 자원활동가들도 생활협동운동을 통한 지역중심운동의 가치와 철학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에서 실시한 1,2기 지역조직가교육도 실무자들이 지역조직가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함께 고민하고 논의에 참여했던 실무활동가들은 여전히 청주YWCA 운동에 있어 지역조직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YWCA 지역여성운동연구, 2018, 연구진 이해정(청주YWCA 사무총장) 연구 발췌>

### 3) 현대 청년여성의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 ① 젠더폭력 예방활동

지역YWCA 활동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해볼 수 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운동이 확장된다면 잘하는 것을 지속해 볼 수 있고 안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볼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점이 지역이 가진 청년운동성의 하나라고도 생각된다.

2010년대 성평등 운동으로 청주YWCA는 여성청년들의 안전문제를 주제로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성범죄 핫스팟 지역인 3개 지역 모니터링사업’, ‘데이트폭력아웃’, ‘불법촬영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역에서 공간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여성들, 평범한 연애라고 생각했으나 벗어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의 연속과 각종 폭력들,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실리콘으로 화장실 구멍을 메우고 있는 비참한 나의 모습. 그리고 어딘가에 찍히거나 합성되어 돌아다니지는 않을까 무서운 나의 사진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연히 걱정해야 하고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었다. 청주YWCA는 이 사업들을 통해 적어도 나의 영역에서만은 안전하게 지내고 여성청년들이 주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도했다. 청년여성들과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들고 대학가 화장실들을 누비며 현장에서 솔직한 소통을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여성운동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지만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지속적인 와이 멤버십을 키우지는 못했다.

#### ② 기독아카데미시리즈

하나님나라 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되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없다. 청주YWCA는 당사자들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룬 것이 기독아카데미다. 기독아카데미는 여성, 청년, 부모 시리즈로 진행하여 당사자들이 기독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인식을 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였다. 기독여성아카데미는 성서적 관점에서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세상은 바뀌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 질서, 봉사는 여성이 더 많이 하지만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질문하는 여성들을 만들었다. 부모아카데미는 기독교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모여서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청년아카데미는 청년성, 여성주의 시각으로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키우고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의 의제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2021년부터는 각 교회로 나가 여성주의의 한 관점인 기후위기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선교사’양성과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한 녹색의 은총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명을 갖고 20여 교회 여성들이 모여 이 과정을 밟고 있다.

### 〈기독교청년아카데미시리즈 주제별 강좌내용〉

1기 기독교청년아카데미 2015. 5. 21.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	5.21(목)	청년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경험하자 -사회적영성과 신앙실천-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
2	5.28(목)	교회사와 우리나라 역사는 별개가 아니지 청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정인곤 (서울 기독교청년아카데미 사무국장)
3	6.4(목)	예수님 계실 적, 여성들은 뭐했지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주의 관점	구미정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4	6.25(목)	교회를 교회되게! -한국기독교의 현주소, 우리들의 역할은?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5	7.2(목)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대체 누구야 (존재의 물음)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대표)
6	7.9(목)	한국사회에서 학벌대신 하나님back으로 살 순 없을까	잡담회
7	7.16(목)	청년실업, 제발 '알'하게 해달라 -노동(일), 취업, 돈	천영환 (사회적자본지원센터팀장)
8	7.23(목)	연애와 섹스, 크리스찬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사랑, 연애, 결혼에 대한 실천적 대안	신원, 조한라 (서울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강사)
9	7.30~31	이때에서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청년들 -칠포세대-청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최철호 (아름다운마을공동체 목사)
10	8.6(목)	땅속에 꽂은 문힌 나의 달란트를 꺼내보자 -나의 비전 발견	이천진 (한양대 교목실장)
11	8.13(목)	특별한 시선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 운동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4기 기독교청년아카데미 2018.5.11 ~ 6.1

차시	일 시	주 제	강 사
1	05.11.(금)	희년과 하나님 나라	김덕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2	05.18.(금)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	
3	05.25.(금)	소비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청년빈곤세대, 내 지갑에서 시작하는 대안은?	
4	06.01.(금)	청년들의 자조금융, 희년은행	

7기 기독교청년아카데미 2021. 9. 28 ~ 10. 7

차시	일 시	주 제	강 사
1	09.28.(화)	성경 속 불평등 언어의 재해석	김근주
2	09.30.(목)	기독교 여성교육	이주아
3	10.05.(화)	교회내 여성의 역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강호숙
4	10.07.(목)	토크 : 교회언니에게 물어봐	백소영

〈환경선교사양성과정〉

1기 환경선교사양성과정 2021.10.1 - 10.29

차시	일 시	주 제	강 사
1	10.01.(금)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2	10.08.(금)	기후위기와 생태영성, 그리고 여성	구미정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3	10.15.(금)	기후위기와 유해물질, 그리고 건강	임종한 인하대 교수
4	10.22.(금)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사회	김정지현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
5	10.29.(금)	기후위기와 지구돌봄서클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센터장

## 2. 팬데믹 이후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YWCA운동의 목적과 주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 ① YWCA목적문과 YWCA운동

####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YWCA 회관에 들어가면 사무실 한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YWCA의 목적문이다. 창문 밖을 보려면 무조건 '젊은 여성'글자가 보인다. 실무자가 되고 맨 처음 받은 훈련은 YWCA의 목적문에 대해서이고 이사님들은 한 글자에 한 시간씩 설명해주신다. 위원회마다 예배후 가장 첫 순서는 목적문을 읽는 것이고 심지어 국장님은 연말 종무식에서 목적문을 외운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수 있는, 다는 외우지 못해도 실무자라면 모두 입버릇처럼 외울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부분을 실제 지역실무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지역에는 정말 젊은 여성들이 존재하는가. 그 여성들은 과연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실천 안해도 그냥 알기만 하면 안되나. 하나님나라 운동 말고 다른 것 하면 안되나. YWCA의 가치는 하나님나라 운동이 전부인가. 이런 물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땅에 헤딩인줄 알면서도 기독교청년성,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위해 이 악물고 끌고 가게 되는가.

YWCA정신이 살아있는 YWCA운동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고민 없이 목적문에 따라 젊은여성운동이고 기독교청년운동이라 답할 것이다. YWCA운동은 늘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낮은 자들에게 묻고 행했던 운동처럼 YWCA 또한 지역사회에서 약자들에게 묻고 활동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 필요한 운동이다. 이 땅에서 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 삼시세끼 당연히 함께 밥먹던 것을 예능을 통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수다가 아닌 영상매체로 확인하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에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이다.

### ② 회원주체성과 지역의제발굴을 위한 노력

지난 역사에서 그 활동의 주체는 목적문에 나오는 '젊은 여성' 기독교청년여성이었다. 기독교아카데미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성찰하고 여성주의 기독교관점의 눈을 띄우긴 하였지만 처음의 목표였던 Y다운 신앙관을 가진 열두제자를 만들자는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청주YWCA 운동과 지도력이 부속시설로 흩어지고 있을 때 ‘생활협동조합’과 ‘올리’로 먹거리 매장을 내고 사회적 경제운동을 새롭게 시도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자연드림’매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최현자 이사는 법인설립 취지문을 통해 청주YWCA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사라져가는 이웃을 되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통하여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자연과 인간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청주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청주YWCA 생협은 법인설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여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올리’는 신자유주의를 상징하는 ‘햄버거’라는 먹거리를 와이답게 만들고 브랜딩했다. 생명살림과 먹거리운동, 여성장애인일자리창출, 일반시민들에 대한 실제적서비스를 사회적경제의 한 블록으로 엮었다. 사회의 각 분야에 흩어진 경제적 약자들의 노동시장을 지역사회내에서 창출해냈고 유효하게 살아남아 한때 청주의 이로운소비와 먹거리운동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은 청주YWCA 50주년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기점으로 청년성을 회복하고 운동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 2016년 청년들의 소셜다이닝 ‘집밥 프로젝트’로 청주지역의 불특정 다수 청년을 모집해 1년 동안 밥을 해먹어 보았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운동으로 ‘감정노동’ 이슈를 지역차원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당신의 노동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지지문구를 넣어 신용카드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학축제에 나가 밤새 버터오징어구이를 팔아보기도 하고 ‘신학과 철학의 만남’이라는 철학강의도 진행했다. 지도력의 헌신으로 50주년을 기점으로 청년들의 비전을 응원하는 ‘길, 꿈, 기회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매년 10명씩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닌 사회속에서 개인의 비전과 꿈을 응원하는 가치로운 장학사업이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제공하고 의제를 발굴해보는 의미는 있었으나 청주YWCA 회원 멤버십 구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 ③ 회원구조중심에서 지역사회여성들의 플랫폼으로

꼭 멤버십이 있어야 하나는 물음을 던지는 시점, 여성청년운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관찰아 보였지만 사실은 실무자와 지도력의 눈물나는 노력으로 버티고 있던 청년성의 방향이 꼭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멤버십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운동의 방향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유의미한 사회적흐름으로 Y의 역할과 인지가 변하기 시작했다.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은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조직이었고 뚜렷한 결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체되어있는 구조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시도들이 분명히 가치는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YWCA의 의미와 청년성은 ‘힘을 낼 수 있으나 계기가 없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들은 연결시켜 지역사회 내의 확실한 영역과 역할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었다. YWCA운동의 A가 이

전까지 Y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모여있는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고 목소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A는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공적 목소리를 내어 운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전의 복지사업이 그랬듯 이미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 YWCA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현재 청주YWCA에서는 이전에는 조직 내부의 전문가 집단이 주류로 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청주청년회, 페미니스트 조직의 구성원들이 집행위원의 주류로 활동하며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농민장터에서 여성청년농민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간담회, 사업연계를 통해 관계망을 확장시켜주어 더 의미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자리를 내어주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YWCA가 현재의 청년성을 배우고 지역의 소규모 여성조직이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귀기울여주고 뒷배가 되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지역운동은 YWCA 멤버십 중심의 운동에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운동하는 여성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 ④ 회관 중심의 활동에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회관으로 YWCA를 찾아왔던 회관중심성은 현재 마을중심성으로 변화되어 마을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의제를 가져오는 리빙랩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22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반사회, 에너지리빙랩 활동은 모두 마을 속에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이다. 이 중 에너지리빙랩 활동은 청주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에너지센터의 기반으로써 기후위기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운동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전의 에너지 운동은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에 그쳤다면 우리의 에너지 운동은 삶에서 실천하는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쿨루프 사업, 자원순환운동 거점기관의 역할, 에너지 피해상담사업으로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에너지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이제까지의 태양광 사업은 업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현재는 와이가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며 새판을 짜고 있다. 캠페인 중심의 비영리단체의 운동에 비즈니스가 결합하여 사회적경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시대에 우리는 부의 축적이 아닌 먹고사는 방법을 어떻게 지역발전과 함께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전의 '돌봄과 살림'사업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폭발적으로 YWCA의 성장을 가져온 것처럼 '에너지전환'운동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22년 '청청할겨'라는 '청주청년이 에너지 전환할겨'사업에 50여명의 지역청년들이 Y의 문을 두드리고 정책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YWCA의 100년을 묻는다면 여태껏 그래왔듯이 시대에 맞춰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실무자, 혹은 회원, 혹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와이가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란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운동성이 있고 시대에 맞춰 여태 그래왔듯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 다른 단체들에 비해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매일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과정이고 연대를 이끌어 나가는 큰 한 발자국이라고 믿는다.

---

**신보미 사회복지사** 신보미 사회복지사는 대학·청년YWCA 재건 멤버로 기독교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고 청주YWCA에서 젊은 실무활동가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지역에서 마을 중심의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동 공간을 옮겨 지역의 당사자들이 당사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발제 3:** 도입방주 님의 발제 ‘한국YWCA 기독교여성운동의 기억과 전망’에서는 기독교청년운동, 기독교여성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를 Y.W.C.A의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제시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YWCA가 역사속에서 YwCa, YWca, yWcA, ywcA 등 사회적 요청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며 지속해왔음을 지적한 부분은 매우 의미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YWCA는 목적문에 나타나 있듯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1922년 목적문에서는 ‘...각 학교’를 명시함으로써 젊은 학생들 중심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70년대까지 대학YWCA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기독교학생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 약화된 대학내 기독교학생운동의 환경하에 대학YWCA는 지역이관으로 연결되면서 대학YWCA의 신학적, 운동학적 담론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기독교여성운동의 지속적 리더십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애초에 기독교학생운동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출발한 YWCA는 ‘학생’으로서의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학생 주체에 의한 운동을 하면서 미래 지도력의 발굴과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반도 함께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운동에서 학생을 위한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주체가 아닌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매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회의 변화와 운동의 기반이 변화되면서 일부 엘리트 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에서 일반시민중심의 사회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학생중심의 변화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며, 다만 학생이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지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2016년 대학YWCA는 대학·청년YWCA로 확대 개편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18개 지역에서 2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청년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YWCA가 견지했던 신학적, 운동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훈련하는 문화와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YWCA는 목적문에서와 같이 ‘젊은 여성들이...’주체적으로 활동한 조직이다. 초기 YWCA는 식민

지 조선에 대한 독립에의 갈망과 식민지 안에서 식민지적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해방이라는 2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YWCA를 규정짓는 가장 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YWCA의 기독교성은 초기 역사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00주년 화보집에서도 ‘하령회’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령회는 학생들의 연합운동이며 청년운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매우 기독교적 모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양한 영성훈련교재를 편찬해 영성훈련을 지속해 왔는데, 아쉬운 것은 이를 모두 목사 등 목회자에 의존해 지속해 왔음을 지적한 부분은 매우 공감이가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YWCA 활동 가운데 영성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없지 않았음을 자성해 보게 된다. 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실무활동가들에 의해 ‘YWCA를 위한 95개 논제’를 펴내 활동가들의 영성훈련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인데, 비록 다소 거칠더라도,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기독교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도의 첫 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독교성은 시민성과 보편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음도 매우 공감이가는 부분이다. 100년을 지속해 온 YWCA 활동의 기반이 기독교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기독교성이 시민운동과 한 흐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성과 시민성, 기독교시민성을 어떻게 정체성으로 잘 정체할 것인지의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A에서는 목적문에서와 같이 초창기에서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에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와이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활동한 역사이며, 세상과 더불어 성장한 역사라고 발제자가 언급한 대로, YWCA의 활동은 지역의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이어온 역사이다. 초기에 현장에 나가는 것에서 어느새 성과중심으로 운동의 기준이 변화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 생각된다. 어느새 현장은 사라지고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과제와 성과로 인식하는 패턴을 지적하면서 와이의 재구조화는 현장에 있는 YWCA를 복원하고 새롭게 위치 잡는 시도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 부분도 의미있다. 100년을 맞으며 초기정신의 회복을 고민하는 현 시점의 모든 YWCA 활동가들에게 과제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제시한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발제자가 100년을 맞은 YWCA의 방향에 대한 바람을 YWCA 역사로부터의 키워드로 제시한 ‘자기결정성’, ‘대중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대중과 함께하는’, ‘신앙의 실천’은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YWCA의 신학’이 정립되어야 함을 제시한 부분이 따끔한 일침을 준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외부 목회자나 신학자의 글이나 목소리에 의존해왔던 부분을 극복하고,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신 선배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고백을 통해 YWCA 내부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100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YWCA에게 지난 역사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분석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주신 발제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제 4:** 광지영 님이 발제한 '지역청년운동으로서의 YWCA 지역여성운동'에서는 그간 지역에서 전개된 여성운동의 흐름과 방향, 현황과 문제점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한국YWCA는 지난 100년동안 기독교에 근거한 공동체적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의 약자를 치유하고 보살피는 '실천적 정의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더불어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운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을 시작으로 오늘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등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지자체로부터의 위탁받은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돌봄의 주체로서의 Y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점차 위탁사업으로 제도화되고, 돌봄주체의 정체성보다 위탁사업기관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본부의 실무활동가 수는 17%인데 비해 부속시설의 실무활동가 수는 83%에 달하는 현실에서 회원YWCA의 운동성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정책수립, 활동가들의 활동보다는 사업수행과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운동역량의 쇠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발제자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역여성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초기의 목적문에서부터 YWCA의 활동근거는 지역과 사회, 공동체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90년대 이전에는 각 대학교, 도시 및 농촌에서의 공동체 형성과 조직화를 통해 기독교, 실천, 나눔 등을 강조하였다면 1997년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문 내용처럼 보다 폭넓은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지향함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2014~2018년까지 5년간의 월간지 YWCA에 실린 회원활동소식을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활동과 돌봄활동이 44.2%를 차지하여 지역사회 YWCA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주체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활동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기반하고는 있으나,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의 주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분석을 통해 YWCA의 지역여성운동을 분석해 본 결과 발제자는 전체 기사의 17.7%가 여성주의와 성평등 활동, 11.3%가 사회서비스와 돌봄활동, 19.5%가 다양한 지역이슈, 19.4%가 환경, 먹거리 등 지역사회 환경·안전 활동 등으로 분석해 제시하였다. 지역 내 환경과 안전, 다양한 지역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00년 이후로 특히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지역이슈에 크게 집중하고 증가하고 있음과 함께 이러한 활동일수록 기사가 많아진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더불어 활동유형도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동가들의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청년 여성 운동에 대한 YWCA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지역에서의 회원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YWCA 전체 회원수는 정체를 맞고 있는데 이중 청년회원의 수는 전체회원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자원활동가의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탁시설이 늘어나면서 실무활동가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부 실무활동가 수(약 17%)에 비해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수(약 83%)가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부속시설이 증가하면서 본부의 핵심사업과 지도력이 부속시설로 이관되기도 하였고 지역운동의 중심이 회원YWCA 본부가 아닌 시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본부의 운동성 약화로 연결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YWCA 정체성을 실현하는 부속시설 전략’으로서 ‘부속시설 신운영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년운동의 회복을 위해 회원YWCA의 책임성과 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YWCA 조직 재구조화가 추진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서 지역중심의 운동성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구축과 청년정책의 수립이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자는 지역청년운동의 새로운 실험으로 군산 로컬프렌들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역에서 청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을 살리는 청년운동의 결합이 되기 위해 ‘YWCA 활동이 삶이 될 순 없을까?’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로컬프렌들리의 출발이었다. 대학 청년 담당 활동가와 청년회원들로 구성된 팀이 고향도 아닌 낯선 군산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와 청년활동을 결합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며 커뮤니티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실험,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성 등이 지역에서의 여성의 주체화, 청년운동의 활성화, 운동성의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제자의 지적은 청년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청년의 주체성과 참여, 지역여성의 주도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화두로 생각되며 이것이 바로 초기 역사에서 선배 활동가들이 견지한 Y의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제 5:** ‘YWCA 정신이 살아있는 교육을 바라며’에서 발제자 이다인 님은 YWCA 창립자 중 한 명인 김필레 선생이 초대교장을 지낸 정신여고의 학생으로, YWCA의 활동정신과 김필레 선생의 정신이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통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배운만큼 달라야 하고 믿는 만큼 달라야 한다는 김필레 선생의 말씀을 간직하고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을 조직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여성리더십에 대한 모습이 여성청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제시한다. 기독교 여성리더십에 대한 귀감을 보여주는 김필레 선생의 모습과 행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여성리더십의 모습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런 미래를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이 매우 감동적이다. YWCA의 지난 역사가 한국 여성리더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회의 많은 여성리더를 양성해왔으며 여성리더십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유산이 지금의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럽고 YWCA의 책임감과 역할이 더욱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더불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리더십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발제 6:** ‘YWCA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을 바라며’에서 신보미 님은 청주지역에서의 YWCA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에서 YWCA운동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965년 창립 이래 청주YWCA는 지역의 여성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조직화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역 여성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청주라는 지역에서 청주YWCA는 특히 지역의 여성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청주YWCA의 역사를 통해 지역의 여성리더십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여성지도력은 젠더불균형적인 지역의 리더십 구조를 변화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청주YWCA는 회관건립을 계기로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여성운동을 대중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여성들의 삶과 욕구를 함께 발견하고 공부하고 '여성'으로서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다양한 클럽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기반한 이러한 활동은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2000년대 들어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일부 여성리더십과 참여자들의 자원봉사에 기반한 활동들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사회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어서 지역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정책적 담론에 대한 논의는 YWCA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1995년 30주년을 계기로 청주YWCA는 생활협동운동과 민들레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여성조직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유기농 지역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등대운동을 통해 회원조직화, 풀뿌리 조직화 담론을 제공하고 새로운 YWCA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협운동에 대한 교육과 지역조직가 교육이 실무활동가들로 하여금 지역조직가의 정체성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귀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역운동의 주체와 의제의 설정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지역에서의 운동역량 증대와 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고민, 적절한 조직화 및 실무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의 활동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주력해야 할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발제에 감사를 드린다.

---

**이은영 교수**

이은영 교수는 2003년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제2부회장으로 열심히 기독교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증진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정책 개발과 제안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 목 적

한국YWCA를 설립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수피아 여학교, 정신 여학교를 재건하며 서울여자대학교 설립의 기초를 놓는 등 평생을 기독교 신앙에 바탕해 여성의 교육과 지도력 양성에 헌신한 김필레 선생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주요 연혁

- 2010. 12. 20 창립
- 2012. 2 김필레선생 전기 『교육의 길 신앙의 길』 (이기서 著) 발간
- 2013. 7 김필레선생 리더십 연구 발표회 (대만 장영대학교 교수 박혜경 박사)
- 2013. 정신학원 도서관 건축 후원(김필레 기념관 명명)
- 2015. 김필레선생 흉상 이전
- 2019. 10 김필레선생 기념문집 『김필레 그를 읽고 기억하다』 (이정숙 外 4인 著) 발간
- 2021. 8 김필레선생 독립유공자 수훈 사업 추진(대한민국 건국 포장 수훈)
- 2022. 7 YWCA 100주년 기념 역사포럼 공동주최

### 주요 정례 활동

- 김필레선생 추모예배
- 김필레 리더십 캠프 운영
- 김필레 상 시상

### 역대 회장

- 초대 주선애
- 2대 강교자
- 3대 윤현숙
- 4대 정혜순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문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1922년 이 땅의 기독교청년여성들은 식민 압제와 여성 억압의 상황에서 절규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민족의 발전과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서 YWCA를 선택하고 조선 여성의 이름으로 주체적으로 조선 YWCA를 창립했다.

오늘날까지 한국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역사를 이어가며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창립 초기의 청년성을 잃었고, 조직의 확장이 운동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때로는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침묵했고, 앞드려 기도하면서 담대히 일어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한다.

한국YWCA의 새로운 100년은 청년이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하며, 편견과 차별을 깨고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주체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지역으로부터 펼쳐나가며, 건강하고 선도적인 조직 개혁으로 시민운동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한국YWCA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YWCA 목적과 비전이 회원들의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연대와 환대로 가득찬 여정이 될 것이다.

### Y

####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 W

###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 C

###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 A

###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시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1922 · 2022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